

데이비드 오. 맥케이 제9대 대관장님은 지난 18일 향년

96세로 서거하셨습니다. - 관련기사 본문 3페이지

그의 후임으로는 죠셉 필딩 스미스 장로께서 지지되었습니다

성도의벗 2  
1970







# 영감의 멧세지

돌프 비. 아이삭슨  
십이사도 보조

고 죠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은 십일조와 금식 헌금의 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마땅히 금식일에는 하루 분의 음식에 해당하는 헌금을 금식 헌금으로 감독에게 바쳐 이로써 가난한 자를 돕게 하며 부유한 자는 자유로히 헌금을 바쳐 역시 가난한 자를 돕게 하여야 함이 옳다.”(복음 교리 243페이지)

만일 말일성도가 금식의 법을 충실하게 지키고 제명에 명시된 대로 정직한 금식 헌금을 바치며 부지런히 기도한다면 세상의 것으로나 영적인 것으로 크게 축복을 받을 것이며 교회는 교회대로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 충분한 기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정직한 금식 헌금을 바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한다.

1967년 10월 4일

공보부 등록 라-932

발행일 1970년 2월 1일  
(통권 제55호)

발행인: 서 현 보

편집인: 홍 무 광

번역: 한국 번역 출판부  
전화 73-5331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선교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210호

대체구좌 서울 1409

인쇄소: 삼화 인쇄 주식회사

정가: 50원

1년 구독료 (우송료 포함)

국내 450원

국의 선박 5불, 항공 7불

제6권 제2호

순서

1970년 2월호

권두언: 행함의 기독 제9대 대관장 데이비드 오. 맥케이.....	1
■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을 추모하며 헨리 에이. 스마스.....	3
세상의 질서 지. 호머 듀람.....	7
여러분의 가치는? 엘윈 씨. 닐슨.....	9
■ 하얀 하나님의 실재 ■.....	12
믿으려는 소망 케네드 알. 하더.....	18
인생의 지침 리차드 엘. 이반스.....	19

## 어린이 성도의 벗

별을 주시하는 소년 게일 테페르만 바클레이.....	20
큰 고랭이 조반 요안나 씨. 밀러.....	23
관리 감독단 페이지: 가정.....	24
자녀 지도의 열쇠 진 라슨.....	26
사랑의 기적 윌리스 에스. 피터슨.....	28
주일학교: 교사의 기회와 목표는 린 스토다드.....	29
나는 직책을 안고 잠들었다 알버트 조벨 이세.....	32
선교부장 멧세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옹사보다 낫다 서 현보.....	34
지방부장 멧세지: 우리는 어느 길을 택하나? 차 중환.....	35
내외소식.....	36
진리의 말씀: 가정에서의 다툼과 행복 리차드 엘. 이반스.....	표4

## 표지 설명:

“우리 모두는 선교사” 라는 말씀으로 말일에 참된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사명감을 일깨우셨던 교회의 제9대 대관장 데이비드 오. 맥케이 장로는 지난 1월 18일 향년 97세로 서거하셨다. 탁월한 인화력과 영감 받은 지도력으로 많은 일을 하셨던 그는 1951년 4월 9일 대관장이 되셨었다. 그에 대한 기사는 본문 3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다.



## 행함의 기독

제 9대 대관장 데이비드 오. 맥케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2장 14절

● 야고보의 이와 같은 중대한 가르침 속에는 이 진리를 매일의 생활 속에서 실제로 응용해야 한다는 암시마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는, “신앙이란 참 삶으로 구현되어야 하고, 참된 기독교인의 행동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통하여 이념과 실제의 생활에는 늘 거리가 있어 왔으며 높은 이상의 부르짖음과 나날의 생활에의 적용 사이에도 말할 수 없는 간격이 있어 왔습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그리스도를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품성을 드러내어 보이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아울러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삶에서 배운 표준에 쫓아 생활하기만 한다면 세상의 병폐나 개인의 고민을 치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가 행복과 평안을 얻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이천년 동안에 소위 기독교의 나라라고 일컬어지던 영국이 패망하게 된 이유를 묻는다면 나는 그 모든 나라가 참된 기독 정신을 받아들여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충실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종교를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잇는 관념적인 줄이라고만 생각지 않을 것이며 선과 악을 판별하는 행위, 임무에의 충실함 등으로 행동해 보일 것입니다.

### 참 종교는 필수적인 것

패트릭 헨리가 인생의 종장에 임하여, “나의 전 재산을 유족에게 상속하였다. 그러나 한 가지만 더 저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바로 기독교다. 저들이 만일 이 종교를 정말 가졌다면 내가 돈을 한푼도 주지 않아도 부자일 것이요 만일 이 종교를 갖고 있지 않다면 내가 세상을 다 저들에게 준다 하여도 가난한 자일 것이다”라고 이야기 했을 때 그는 참된 종교의 필요성을 절감했던 것 같습니다.

참된 종교는 유콘이 소위 “순수한 본성”이라고 한 이기심, 탐욕, 속된 것의 집착등을 극복하게 해주며 세상의 소음을 초월한 거룩한 삶의 호흡을 체득하게 해 줍니다.

유콘은 계속하여, “이러한 종교 없이는 참된 문명이 있을 수 없다. 초 자연적인 삶과 연관된 일체를 부인하며 신비스러운 인간 내면의 생활 형성을 거부하는 문명은 사실상 문명의 모방일 뿐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육천년, 아니 그보다 더 긴 세월을 두고 인간은 때때로 전쟁을 유발시킨 동물적인 격정, 황폐, 사망, 질병, 탐욕, 이기심, 증오, 질투 등의 쓰라린 아픔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극히 단순한 원리를 지켰던들 이런 것 짙은 진작 해소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복음의 원리를 지켜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에 대하여 경건함을 갖고 정직, 순결하고 공정한 삶을 살며, 십일조와 헌금을 바치고, 매일매일 기도를 게을리 하지 말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몸에 해로운 차, 커피, 알콜성 음료, 담배, 기타 해독성 식물을 취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 간증은 신앙을 강하게

나는 우리가 모두 육과 같은 간증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는 환관 중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서 사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의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요 19:25-27)

확고 부동한 복음의 가르침과 이념과 말씀이 이와 같은 간증을 가져오며 이러한 간증을 갖는 사람의 강건한 의지와 성실함은 간증의 도와 늘 비례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은 간증을 갖는다면 닥치는 모든 유혹을 능히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교회의 어린 소녀가 전해 온 편지의 내용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저는 주일학교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른 교회 의식도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는 장미를 얼어 죽게 하는 찬 서리와 같은 그녀의 방종과 약점을 고백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유혹을 이겨내는 힘이 결핍되어 있었으며 마침내 그 아름다운 소녀는 감당 못할 설움을 안아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대회에서나 와드 혹은 지부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세상에 가득한 악을 이겨내는 힘을 길러 줍니다. 우리는 모두 강하게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불 때 스테이크나 와드나 보조조직이나 신권 정원회의 역원과 지도자에게 맡겨진 임무는 참으로 막중합니다. 교회의 젊은이들은 모두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저들 앞에 모범이 되어 복음 원리에 순종하고 복음을 실행하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일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해결의 열쇠를 전해

주실 때까지 인내와 신앙으로 기다릴 수도 있어야겠습니다.

### 지켜야 할 네가지 원리

이제 이야기 하고자 하는 원리는 지극히 간략하여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쉽게 받아 들여 생활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원리이며 참된 기독교 사회와 기초를 이루는 원리는:

사랑 주 너희 하나님에 대한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한 사랑입니다. 살아 계셔서 그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절대자에 대한 믿음은 모든 인간에게 힘과 능력을 갖게 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내자가 되시며 구하는 자에게 길을 보이십니다.

두번째 원리는: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요 거룩한 것이라는 진리를 받아 들이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바르게 받아 들여 사는 사람은 자연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자연의 주인이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기의 식욕을 조절하여 건강을 바르게 관리하며 지상의 삶을 오래 누립니다. 또한 격정을 달래어 자기와 다른 사람의 행복과 축복을 영속 시킵니다.

셋째 원리는:

개인의 성실입니다. 바꿔 말하면 매일의 생활에서 정직하고 온유하며 남의 권리를 존중하는 등의 자세이며 이로써 신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개인에게나 국가에나 다 적용됩니다. 강국이 힘으로 다른 나라를 압박하고 약탈하는 것이나 개인이 이웃의 것을 훔치거나 살인하는 일은 다 같이 용납할 수 없는 악한 것입니다.

네번째 원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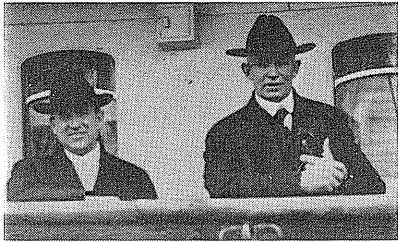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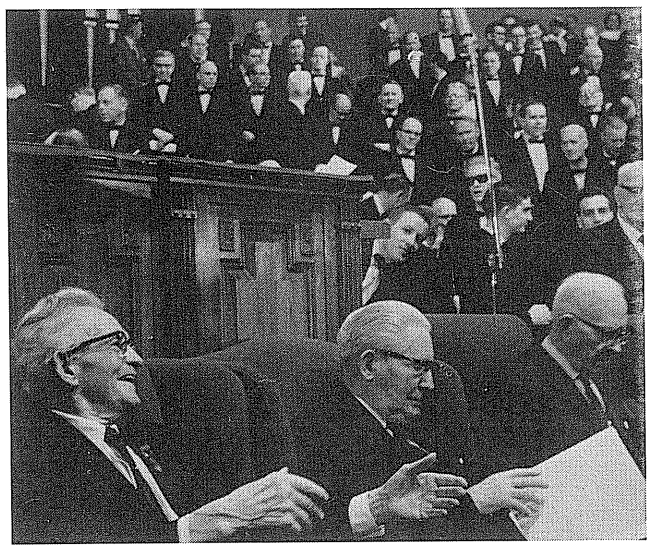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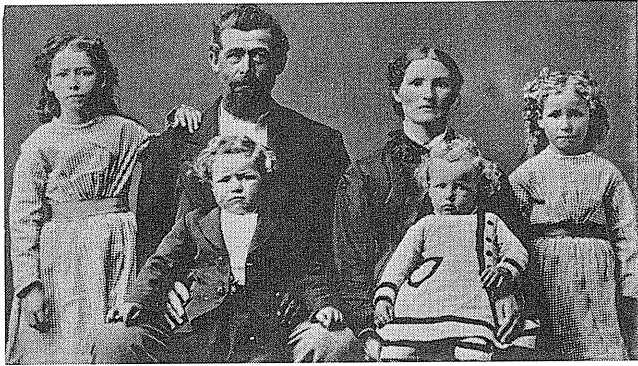
우리가 속하여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보다 훌륭하게 건설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연대 책임감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바로 이러한 사상에 입각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삶이 나의 친구에게 하등의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나에게도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이다.”

언젠가는 모든 인류가 서로서로 바른 유대를 맺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깊게 인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단순한 믿음이나 입으로 전하는 권고나 설교만으로 이러한 이상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원리를 생활에 적용하며, 지키는 모든 사람을 복주시고, 지키는 모두를 아름다운 정신 세계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에 따라 행동할 때라야 이러한 이상의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



우 : 맥케이 장로님과 그의 보좌들은 태버나클에서 열렸던 여러 연차대회를 관리 하셨습니다.

하 : 그의 가족 사진. 그는 아버지의 무릎 위에 앉아 있다.



상 : 1921년 12사도로서 캐논 장로와의 세계 일주 여행.

##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

헨리 에이. 스미스  
교회 공보관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사랑하는 선지자요, 선견자요, 계시자인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께서 1970년 1월 18일 유타주 솔트 레이크 시의 자택에서 별세하셨다. 96세의 선지자를 보내는 장례식은 1월 22일 솔트 레이크 태버나클에서 거행되었다.

데이비드 오맨 맥케이 대관장은 1951년 4월 9일 신전광장에 위치한 역사적인 태버나클에서 가진 성회에서 교회 회원의 지지를 받아 제9대 대관장이 되셨다. 그 때가 77세 였었다.

사랑하는 선지자요, 선견자요, 계시자는 유례가 없을 정도의 발전 기록을 세웠으며 약 20년간에 걸친 하나님 왕국의 발전은 그야말로 추종을 불허하는 행군이었다 하겠다.

오늘날 구백만 교회 회원의 반 이상이 맥케이 대관장 이외의 선지자를 몰랐었다는 사실로도 물몬의 발전 행군의 속도가 어떠했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그 분이 이 직책에서 봉사한 기간이 교회 사상 가장 현저하게 성장 발전한 시기임을 여러 면에서 반증할 수도 있다.

맥케이 대관장은 “성령의 동반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으로 교회를 인도해 오셨다. 그분의 영감받은 지도력과 대관장으로서 이루어놓은 업적을 생각해 볼 때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것이 분명하다 하겠다.

교회가 참으로 국제적인 면모를 띤 “황금기”였다 하겠다. 1952년 여름, 교회 역대 대관장으로서 최초로 가진 구라파 여행을 통하여 구라파 지역의 회원도

좌 : 1961년 2월 영국에서 처음 세워진 물몬 — 3 — 집회소인 하이드 파크 예배당 헌당식에서 말씀하시는 맥케이 대관장님



미국에 있는 교회와 가까운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케 해주셨다. 스위스 신전 건립 예정지를 정하신 것도 이 때였으며 현재 런던 신전이 서 있는 지역의 구입도 시사하신 것도 바로 이 시기였다.

그 분은 세계 어느 곳에 있던지 말일성도라면 신전이 가져다 주는 위대한 영적인 축복을 받을 기회를 받아야 하며 아울러 살고 있는 지역에 교회를 건립하여 참석할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다. 이러한 방향에 중점을 두어 노력하여 대관장 재임시에 만도 다섯 개의 신전을 헌납하게 되었다. 더우기 신전 다섯 중의 셋은 미국 밖에 즉 스위스, 영국, 뉴질랜드에 각각 하나씩 건립된 것이다.

그 분이 택하신 “국제적인 정책”의 일면은 영국, 구라파, 남미, 나아가서는 태평양 지역까지 시온의 스테이크를 조직하셨다는 점에도 잘 나타나 있다. 미국외에 최초로 조직된 스테이크가 만체스타 스테이크로 1961년의 일이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은 아주 극적인 상황에서 대관장이 되신 분이다. 교회 제121차 연차 대회가 4월 6, 7, 8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걸쳐 가질 예정으로 수 주일 동안 대회 준비가 한참이었을 때였다. 대회 이틀 전, 그러니까 1951년 4월 4일 조지 알버트 스미스 대관장께서 81세를 일기로 쏘트레이크시의 자택에서 세상을 떠나셨던 것이다. 가족 여러 사람과 장차 그의 대관장직을 계승하여 막중한 책임을 양 어깨에 지지 않으면 안될 사람등이 그의 임종이 가까워 온 침대를 지켜보고 있었다.

맥케이 대관장은 당시 대관장의 보좌 및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의 직을 맡고 있었다. 대회 하루 전 날이 죽음과 싸우는 지도자 결을 찾았으나 스미스 대관장은 그를 알아보기조차 못하셨다. 사실 이 때에 교회를 인도할 지도자로서의 책임이 다가온 것이었다. 순수하고 겸허한 경험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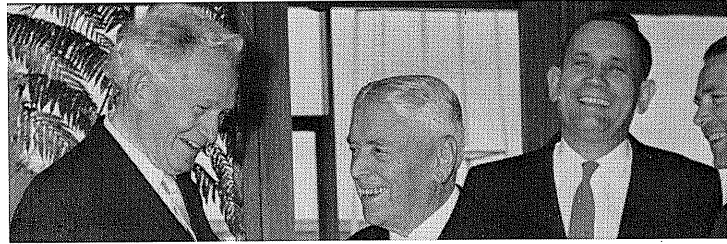
대회는 이틀 후 태버나클에서 대관장을 공식으로 둔 채 시작되었다. 대회 관리는 맥케이대관장이 회장으로 봉직하던 십이사도 정원회가 맡았다. 그 곳에 모였던 사람이나 방송 혹은 텔레비로 시청한 사람들은 이 대회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관리로 열린 최초의 대회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토요일 대회는 스미스 대관장의 장례식 관계로 취소되었다. 맥케이 대관장이 장례식의 감리를 맡았다. 그리하여 대회는 월요일 오전까지 연장되었는데 이 성회에서 맥케이 대관장과 스테븐 엘. 리처드와 제이 루우벤 클라크 이세를 보좌로 재조직된 대관장에 대한 지지가 있었다.

맥케이 대관장이 인도한 거의 20년 동안에 발전해

상 : 역대 대관장 중에서 가장 많은 여행을 하신 그는 뉴질랜드의 성도들도 만나보셨다.



하 : 그는 많은 정치가와 만났었다. 뉴질랜드의 월터 내슈 경과 함께.



온 교회의 모습을 간략하게 추려보면 회원 수, 스테이크 및 와드 수, 선교부 수를 들 수 있다. 대관장이 되시던 1951년 회원 수는 약 115만명이었는데 오늘날에는 300만에 달하고 있다. 1951년의 스테이크 수가 180, 현재는 500이나 된다. 와드 또는 독립 지부의 수가 1,541개였으나 오늘날에는 4,200으로 증가했다. 당시 43개 선교부가 80개로 늘었다.

이러한 발전의 주 요인은 맥케이 대관장의 고무적이며 진보적인 지도력이라 하겠다. 그 분의 영향력은 교회의 지부가 존재하는 곳이면 세계 어느 곳에서나 미치지 않은 지역이 없을 것이다. 역대 대관장 중에서 방문 여행을 가장 많이 하신 분이다. 현대의 교통수단에 힘입어 지구의 구석 구석에 이르기 까지 방문하여 회원을 만나셨으며, 선교사의 용기를 북돋아 주셨으며 예배당과 신전을 헌납하셨는가 하면 교회들 옹호해 줄 친구를 얻으셨던 것이다. 수차례 걸친 영국, 구라파 방문 여행, 중남미와 멕시코의 선교부 방문, 남 아프리카 방문(교회 총관리 역원으로 이 지역을 방문한 사람이 그 때까지 없었다) 역대 대관장이 엄두도 못냈던 뉴질랜드, 오스트랄리아를 포함한 태평양 지역까지 그 분의 발길은 닿았던 것이다.

맥케이 대관장은 1906년 4월, 32세의 약관으로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임명된 것을 시작으로 약 64년 동안을 총관리 역원으로 봉직해 오신 분이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은 스코트랜드 출신의 물론 개종자인 데이비드 맥케이와 웨일즈 태생의 제네트



상: 대관장 부부와 아들 로렌스 부부는, 1952년 헬싱키를 방문하여 헨리 에이. 마티스 형제의 영접을 받았다.



좌: 기간중 5 개의 신전이 헌납되었으며 그중 3은 미국 밖에 세워졌다. 1955년 런던신전 기공식에서.

하: 1906년 십이사도로 부름 받았을 당시의 사진.



이반스 맥케이의 아들로 1873년 9월 8일 유타주 옥든 계곡의 헨즈빌에서 출생했다. 부친은 대관장의 나이 7세였을 때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 영국에서 2년간 봉사한 바 있었다. 모친과 자녀들은 헨즈빌의 집에 남아 가족 농장을 운영하였다. (헨즈빌에 위치한 이 집은 적어도 맥케이 일가에게는 더 할 나위 없는 안식처였다. 맥케이 대관장께서도 지난번 병이 악화되기 전까지만 하여도 이곳에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은 헨즈빌에서 초기 교육을 받았다. 1894년 솔트 레이크 시의 유타 대학에 입학하여 1897년 졸업했다. 졸업식에서는 졸업생을 대표하여 답사를 한 경력이 있다.

대학을 마치자 부름을 받아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 영국에서 선교사로 봉사했었다. 이때로부터 선교 사업과 지도자로서의 생애는 시작된 것이며 사실 교회가 배출한 선교사 중에서 가장 훌륭했던 선교사라는 칭호를 받기에 이른 것이다. 1898년 3월 글래스고 우 지방부의 지방부장으로 임명되어 1899년 9월 귀환 시까지 1년 이상을 일했다.

1899년 현재의 유타주 옥든 시의 웨버 주립 대학의 전신인 웨버 아카데미 교사로, 1902년에는 이 학교의 교장의 직에 임명되었다.

맥케이 대관장은 1901년 1월 2일 솔트 레이크 시 출신의 엠마 레이 리스 자매와 솔트 레이크 신전에서 결혼하였다. 이상적인 부부로 전 세계 말일성도에게는 표본이 되는 가정의 결속을 실제로 보여 주셨다. 슬하에는 일곱 자녀가 있다. 데이비드 로렌스 맥케이 르웰린 알·맥케이 박사, 로얄 리스 맥케이(서거), 릿셀 블러드 여사, 콘웨이 애쉬튼 여사, 에드워드알. 맥케이 박사와 로버트 알. 맥케이 들이다.

1906년 사도로 부름을 받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데저렛 주일학교 감독단의 보좌가 되었다. 1918년에는 상기 조직의 감독의 직에 임명되어 1934년 대관장단의 보좌로 부름을 받을 때까지 봉직했다. 맥케이 대관장은 “현대 주일학교의 아버지”로 유명하다. 그분의 공적 중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것은 주일학교 프로그램을 일원화 하였으며 공과 진행 기술 및 제시 방법의 개발등을 들 수 있다. 유치반으로 부터 성인 반에 이르기까지 등급과 체계를 세워 발전할 수 있는 공과 방법은 높이 평가되고 있다. 한편 교사 훈련 제도를 채택한 분도 바로 맥케이 대관장이다.

교회 교육 프로그램에 미친 공적 또한 크다. 1906





좌: 태평양 제도의 방문중 목  
에 아름다운 레이를 걸고 있  
다.

하: 1955년 8월 스코트랜드  
그린노크에 도착한 태버나를  
합창단원을 영접하고 있다.



년부터 1919년까지 교회 교육 위원회의 일원이었으며 1919년 1921년 교회 교육 위원회 이사로 일하셨다. 또한 유타 대학 평의회 일원으로, 유타 주립 대학의 이사로 봉직하셨다. 서거 당시에는 브리감 영 대학의 이사장 및 교회 교육 위원회 위원장이셨다.

1921년 맥케이 대관장은 휴 제이. 캐논 장로와 함께 세계 전역의 선교부를 순방하였는데 이는 교회 총관리 역원으로서는 최초였으며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남 아프리카를 제외한 선교부 전역을 방문하여 6만 2천 마일 이상을 여행한 것이다.

1922년 영국에 본부를 둔 구라파 선교부의 관리 책임을 맡게 되었다. 그는 2년 후 솔트레이크 시로 돌아왔다. 그 후 십년간을 사도로 교회의 전반적인 활동을 지시, 인도하여 왔다. 1934년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의 제이 보좌로, 후에는 조지 알버트 스미스 대관장의 보좌로 봉사해 오던 중 1951년 교회 대관장의 직에 오르게 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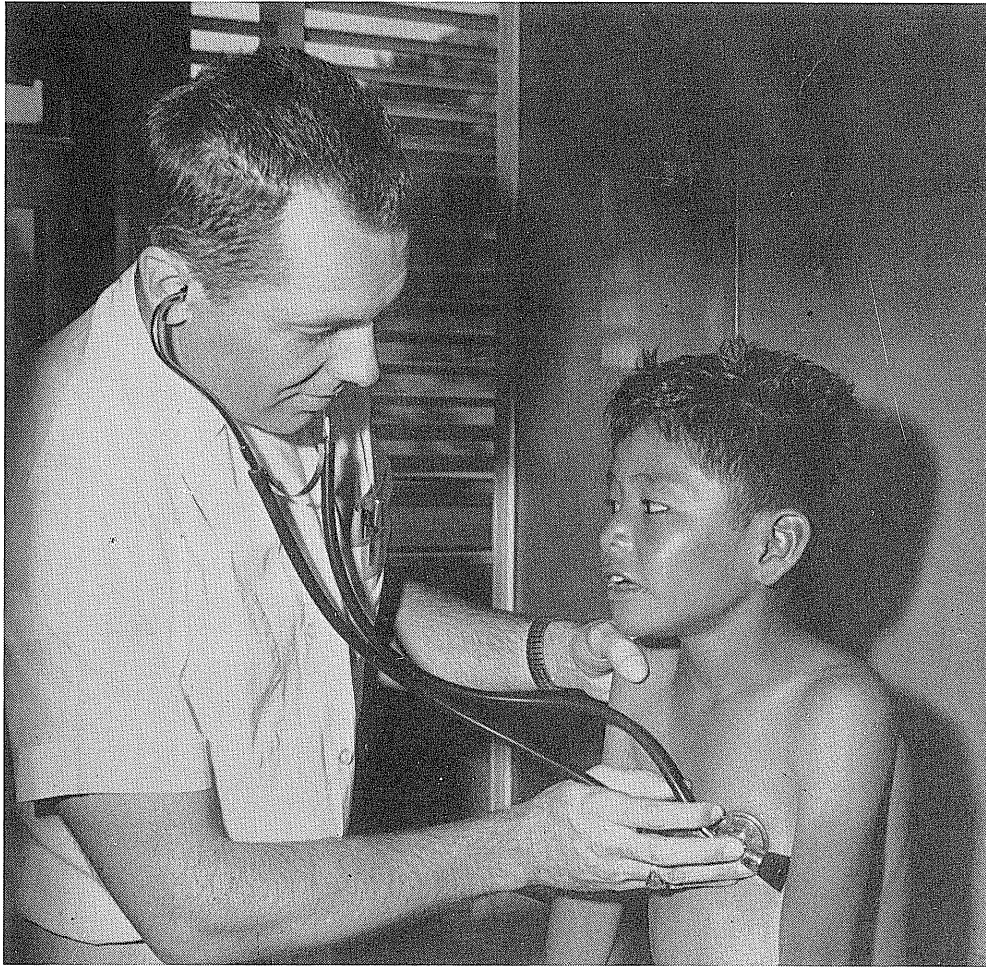
교회의 일로 분주하신 가운데에도 맥케이 대관장님께서서는 여러 가지 사회 활동에 참여 하셨으며 중요한 직책을 맡으셨다. 1938년 물론 개척단이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한 날을 기념하는 백년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유타주 주지사는 대관장님을 백년제 준비 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하였다. 도착 기념일의 백년제는 1947년 7월에 갖기로 계획되고 있었다. 대관장님의 탁월하신 영도아래 백년제는 훌륭하게 준비되었고 1947년의 백년제는 브리감 영 2대 대관장님과 다른 물론

개척단이 처음 솔트레이크에 발을 디딘 솔트레이크 시 동쪽 기슭에, “바로 이곳이다”라고 명명한 기념비를 세워 제막식과 헌납식을 가질 때가 절정이었다.

맥케이 대관장님의 설교와 글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단행본으로 출판된 것도 있고 이라지, 인스트라터지, 기타 성도의 벗과 같은 정기 간행물 등의 잡지에 권두언으로 매달 소개되고 있다. 이러한 영적인 대관장님의 문헌은 사랑받던 위대한 지도자의 영원한 기념비가 되어 전해 질 것이다.

브리감 영 대학과 유타 주립 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은 것을 필두로, 유타 대학, 필라델피아 신전 대학등지에서도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51년 6월 대관장님이 필라델피아 신전 대학에서 학위를 받으실 때 학위 수여 전에 있던 소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 “그는 교회의 관리와 교회 학교 운영과 세계에 뻗힌 선교 사업의 관리, 교회 교리 및 정책에 관한 저서 집필, 제반 교회 사업의 정리등으로 일생을 바치셨다.” 1954년 9월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의과 대학에서는 “인류의 복지와 교육에의 헌신과 장려 및 인간적인 노력의 공적을 인정하여 “명예 회원증을 수여하였다. 이 밖에도 그 분이 인류에 쏟은 탁월한 희생을 높이 평가하여 수여된 감사장이나 표창장의 수는 상당히 많다.

오늘 수백만의 사람이 위대한 인간이며 모범적인 아버지요 사회적, 영적인 지도자요 하나님의 영감받은 선지자의 서거를 애도하고 있다. ○



# 세상의 질서

지. 호머 듀람

● 마태에 의하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그리스도가 감람산에 앉아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바로 이곳에 “그리스도가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징조가 보일 것이냐?”고 묻는 그의 제자들에게 대답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다.

24장 25장에는 아래와 같은 주목할 만한 변천사태, 경고등이 기록되어 있고 심오한 비유의 말씀도 찾아 볼 수

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 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24 : 14)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24 : 37)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25 : 13) 그 외에도 25장 14절에서부터 30절까지는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 25장 31절에서부터 46절에는 최후의 심판에 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다.

사람들은 이곳에 소개되는 비유의 말씀은 자주 그 근본 의도와는 전혀 다른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좌우명으로, 교훈등으로 완전히 분리하여 다루고 있다. 그 근본 의도라 함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가 감람산에서 그 제자들에게 전하신 예언의 가르침인 것이다. 각 비유의 말씀은 전하고자 하는 그 본래의 의도가 아주 명백

하다. 달란트의 비유만 하더라도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예지를 뜻하며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하여는 그것을 향상시킬 의무를 진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가 착하고 충실하고 유익한 종이 될 때 주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며 (25 : 21, 23) 그렇지 못하면 무익한 종으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길 것이다. (25 : 30)

마지막 심판에 관한 비유를 보면, 적어도 주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만이라도 어떻게 하면 세상 재산(달란트를 재물로 비유했음)을 늘릴 것인가를 보여주고 계시다. 아울러,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25 : 31~32) 라고 기록되어 있다.

마지막 심판의 비유의 말씀에는 감람산에서 마지막으로 전하신 위대한 가르침의 말씀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는 산상수훈 중의 크라이막스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한 두 계명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의롭다는 일컬음을 받으며 왕의 오른 편에 있게 될 양배와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 부터 너희를 위하여 나라를 상속하라” (25 : 34)는 말을 듣게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대답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주린 자를 먹이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며 나그네에게 잠자리를, 벗은 자에게는 입을 것을, 병들었거나 갇힌 자에게는 위로와 도움을 주라는 말씀으로 (25 : 35~35)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으로 얻어진다는 사실을 지적하셨다. (25 : 40)

비유의 말씀에는 이러한 가르침에 좇는 자는 칭찬을 받으나, 주린 자를 의면하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며 헐벗고 나그네 된 자에게 입을 것이나 안식처를 마련해 주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쫓겨나 “너희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25 : 4)는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내어 쫓긴 자는 영원한 벌을 받을 것이요 의로운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25 : 46)

위에 언급한 위대한 가르침의 말씀은 모든 세상 사람에게 사실적인 인생 설계를 암시해 준다. 우리는 이웃을 돕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께서 허가하신 달란트를 향상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는 특히 불행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도아야 하는 사명의 부름을 받은 것이다. 더러는 부름의 사명을 다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인즉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결의가 심히 심각한 것이라 하겠다. 과연 나도 그저 평범한 군중의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인가? 이미 때는 열 한 시가 되었다. 나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복음을 함께 생활하는 성도의 무리로서, 시민으로서, 아니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 결의

를 새롭게 하여야 할 것이다.

나는 부강한 나라에 사는 부자가 반드시 하나님 왕국의 양과 함께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으며 그 반대되는 사람이 “염소”와 함께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지도 않는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개인이나 집단 사회를 막론하고 건전한 발전을 하자면 주어진 달란트를 발전시켜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교회는 최근 두 가지를 더욱 더 강조하고 있다. 그 첫째가 사랑, 교육,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족 개개인이 갖는 존경등이 구비된 건전한 가정 생활이다. 어린 아이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라는 노래를 배우면서 자랄 수만 있다면 혼란한 세상을 능히 이길 힘을 갖출 것이며 개인이나 집단의 행복과 세상의 질서를 이룩하는 열쇠되는 달란트나 마지막 심판에 대비하는 충분한 무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교회가 강조하는 두 번째의 것은 “그러므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저마다 자기 의무를 배우며 자기에게 임명된 직책을 부지런히 완수하게 하라”는 교리와 성약 107편 99절의 말씀이다.

산상수훈 중의 비유 두 가지는 이러한 현재의 교회 정책에 일치된다. 바로 이곳에 개인이나 집단으로의 성도가 추구해야 할 구원의 길이 있다. 이 가르침의 말씀에 세상의 불안을 제거하고 세상의 질서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열쇠가 담겨져 있을 것이다. ○





# 여러분의 가치는?

엘원 씨. 닐슨

● “저 사람은 너무 전방지극! 제가 제일인줄 알고 있어.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조차 큰 자비를 베푸는 것 짚으로 생각한단 말야.”

이제까지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가끔 위에 설명된 것과 같은 사람을 대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더 많은 사람, 아니 거의 모두가 내면에 교만의 씨를 품고 있으며 그 정도는 놀라움과 실망을 안겨 주기에 충분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같은 불의의 교만이 어디서 비롯되며 어떻게 하면 방지될 수 있을 것인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상스럽게도 가장 전방지고 교만한 사람은 흔히 자기 자신을 형편없이 낮게 평가하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좌우간 이러한 사람은 스스로가 일고의 가치도 없고 사랑을 받을만 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넌씨는 예쁜 옷이 많기로 동리에서 첫째입니다. 그네는 야외 파티에는 자주 참석하지도 않지만 일단 참석할 때는 그야말로 성장을 한채—너무나 성장을—남편 곁에 붙어서 다른 사람들 하고는 한마디도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네를 길에서 만나는 수도 있지만 그럴 때는 더욱 말이 없었고 사람을 만나면 그냥 쳐다 보기만 하고는 아는체도 하지 않고 지나쳐 버린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중론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녀가 그 남편의 재산으로 인한 대단한 우월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고 상류 계급의 사람들 하고만 교제를 갖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 대

하여 심한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그 열등감으로 인하여 감히 다른 사람 앞에 나가서 이야기도 꺼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사회적인 위치로 인하여 스스로의 가치가 조금도 증대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으며 자기는 결코 그 남편의 아내로서의 요구 사항을 다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넌씨는 자기 불만과 공포에 허덕이느라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는 조금도 신경을 쓸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와같은 넌씨류의 공포는—대개는 사람들이 바로 간파해 내지 못하지만—파괴적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를 막론하고 그 표면적인 달성이나 외모에 구애됨이 없이 그저 자기라는 사실 하나로 자기가 남의 사랑을 받을만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외적인 달성, 즉 눈에 보이는 달성 그 자체는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오직 자기의 외적인 유산이나 생활력 때문에 자기 부인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사람은 스스로에 도취된 사람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그의 은행 잔고나 그가 소속한 클럽의 회원 자격 이외에 내세울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이러한 사람은 자기의 진정한 가치에 대하여는 생각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너무 깊게 자기를 관찰하여 형편없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리라는 공포로 부터 해방되려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기의 참된 가치와 위대함을 끝내 발견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크게 성공한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오직 자기의 세속적인 명성 때문에 자기의 부인이 곁에 머물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공포때문에 그는 그 아내를 자기 곁에 언제나 머물게 하려는 뜻으로 더욱 더 열심히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그의 아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오직 남편이며 따라서 더욱 두터운 남편의 사려와 사랑이 필요하다는 불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부인의 발언이 그를 몹시 당혹하게 하였고 아울러 그의 화를 돋구었습니다. 그리하여 더욱 열심히 일에 열을 쏟았고 부인에 대하여는 점점 더 게을리 했습니다. 마침내 그 부인이 모두를 자기에게 쏟을 수 있는 남자를 찾아 자기 곁을 떠났을 때 그는 완전히 절망한채 자살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 의롭지 못한 자만이란 ?

내 개인의 의견입니다만 이러한 공포의 인물은 자기의 열등감을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크게 부각시켜 말소해 버리겠다는 의도때문에 흔히 정당하지 못한 교만을 전시합니다. 그리하여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열등감을 아니, 자기의 무가치함을 다른 사람에게로 전가시켜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환언하면 이런 사람은 자기 주변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도 자기가 어느 면에서나 우세하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자기 자신에게 확신시키거나 노력하며 이러한 느낌이나 이미지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언제든지 기회가 있는 대로 남을 짊어 내리려 할 것입니다.

로스는 논쟁으로 자기를 방어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던지 남의 이야기는 언제나 틀리다는 겁니다. 이러한 태도로 로스는 자기와 다른 견해를 갖는 사람을 모두 바보로 만들고 맙니다.

정당하지 못한 교만은 전방지고 교만한 사람에게는 당연한 것이어서 그것을 인식한다면지 하는 일이 용이치 않습니다. 남의 의견이나 비판을 여유있게 관용으로 받아 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허 그것 참, 내가 너무 빠져 있었던 모양이군요. 도대체 바로 생각하지도 못했으니...” 이런 태도로 그릇된 자기를 바로 잡는 대신 오히려 남을 궁지로 몰아넣거나 웃음거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기의 불합리 함을 남에게 솔직하게 털어 놓지 못하며 오히려 자기 자신이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나 사물에 불만이라는 태도를 갖습니다. 그러므로 아무 것에서도 만족을 얻지 못하며 그의 아들이 90점을 받아오면 또 그것이 100점이 아니라고 하여 마음을 상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또한 혹 자기 아들이 자기 보다도 남을 더 훌륭하게 생각하게 되거나 앓을가 하여 아들 앞에서는 털어 놓고 남의 칭찬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차존심은 쉽게 상처를 입으며 구구한 변명이나 가식이 없는 적라라한 자기를 선뜻 내어 놓지 못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교만 만큼이나 자기를 파괴합니다. 사람

들은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가질 때 자기의 두려움을 그 앞에 둡니다. 이러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협조도 하지 못하고 따뜻한 동정도 베풀지 못하며 자기의 정열을 하나님께서 허가하신 무궁한 잠재력을 개발하는 일에도 사용하지 못하고, 다만 자기를 변호하고 남을 헐뜯으며 남에게 보다 나은 행위를 강요하는데 소모해 버리고 맙니다.

### 자기를 존중하는 태도

위에 언급한 것과는 달리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인간으로의 자기에 만족하므로 이들이 갖는 만족감이 쉽게 의롭지 못한 교만과 연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고 또 가고 있는 길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알고 있으리라는 사실은 너무도 당연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당장에 완전한 존재가 되겠다는 두려움을 갖는 대신에 합당한 노력을 계속하며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자기를 알고자 하는 사람 앞에 정직하게 자기를 드러내 놓으며 시기하거나 비판하거나 자기와 비교하려 하지 않고 대등한 위치에서 이들을 받아 들일 것입니다. 자기 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을 대할 때에는 그를 헐뜯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것이며, 자기 보다 부족한 사람에게 보여준 것과 똑같은 사랑과 따뜻함으로 그 재능을 높이 평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은 자기의 가치를 분명히 알뿐만 아니라 남의 가치를 보고 공포를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남들의 합당치 못한 교만에 분노하기 보다는 오히려 저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려 하고 협조하려는 태도를 갖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만큼 고독한 사람이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사람일수록 너그러운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남들과의 교제에서 자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대하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는 자기와 함께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나는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만큼 자네가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네. 나는 자네와 더 오랜 시간을 함께 하고 싶거든” 이렇게 자기를 구김없이 내어 놓으니 대인 관계에서 우두커니 서 있는 사람보다 얼마나 부드럽고 훈훈하겠습니까?

### 자신있는 사랑

그렇다면 노여움이나 탐욕은 어떻습니까? 훌륭한 사람도 이와같은 걱정을 체험할까요? 물론 대다수의 사람이 체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훌륭한 사람은 이러한 감정의 변화를 남을 공격하고 남의 인격을 저해하는 일에 사용하려 하

지 않을 것입니다. 화가난 중에라도 남을 존중하며 합당하게 대하려 할 것입니다. 가령 아들에게는, “네가 너의 누이하고 싸우면 아빠는 몹시 화가 난단다”라고 말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아들에게 나쁜 놈이니 하는 식으로 화를 내어 감정을 다쳐주지 않을 것입니다. 남을 공박하는 것은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이거나 간에 자기의 성품이 남의 것보다 훌륭하다고 하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웃을 우리보다 더 사랑해야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만큼 사랑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서는 남을 사랑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예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교훈을 전달해 줍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진정한 인간의 성장의 길에 있어서 이러한 긍정적인 자기 확신은 불가결한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은 모두 태어날 때부터 자기를 구현하려는 의지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즉 가능한 모든 한계 안에서 정서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러나 칼 로저스는 인간이 자기를 선선하게 분석 비판할 힘이 없이는 발전하지 못한다는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는 우리의 장점과 단점, 약한 곳과 강한 곳을 낱알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로저스는 인간이 자기의 장단점을 분별하고 자기의 잠재력을 인식할 때에 자기가 근본적으로 선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고 자기의 선을 사실로 구현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확신을 갖는 일곱가지 방법

어떻게 하면 불의한 교만을 몰아내고 긍정적인 자기 확신을 갖게 될 것인가? 물론 여기에 신비스런 황금율이 있을 수는 없으나 여기 도움이 될 몇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노여움을 바로 다스릴 것.** 자칫 불의의 교만으로 연결되기 쉬운 공포는 노여움이 아주 나쁜 것이라는 가르침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사실 노여움이란 인간의 기본 감정이며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인 면에서 합당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소위 기본 감정이란 것들도 같은 방법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 자기의 감정이나 마음의 충동을 온전히 발표하도록 연습할 것.** 무엇보다도 참된 자기 모습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자기의 약한 점에 눌러 좌절감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고 용기를 갖고 정면으로 자기의 약점을 보자는 것입니다. 인간은 비판이 전제되지 않을 때 자기를 잘 들어내며 천천히 자기를 덮고 있는 껍질을 벗으며 늘 자기의 초라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리라 생각되던 곳에서 의외의 강점을 발

견하게 된다는 사실을 심리학자들이 알아 냈습니다.

**3. 자기의 장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둘 것.** 대체로 사람들은 긍정적인 자세로 자기의 모습을 바라 보기를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주 사람들에게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하는 일과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일을 연습삼아 적어 목록을 만들어 보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런 다음 두개의 목록표를 비교해서 어느 쪽이 더 긴가를 알아 보라고 합니다. 대개는 잘하지 못하는 쪽의 목록표가 몇배 길게 나타나는데 이는 실제로 이 사람들의 단점이 많아서가 아니라 스스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를 꺼리는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호평하는 일이 악덕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스스로 교만하다는 인상을 던져 주게 되거나 않을가를 염려합니다.

**4. 용감하게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던져볼 것.** 스스로의 긍정적인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공공연하게 전달한 다음 그것이 저들에게 용납되는지를 살펴 보도록 해 봅시다. “나는 너의 의사 전달 방법이 마음에 든다” “나는 네 머리스타일이 마음에 든다” “나는 네가 좋다”는 등의 직접적인 표현을 교만한 사람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이러한 내용의 이야기를 할 때에는 꾀아다 붙이려 합니다.

**5. 저녁 식사 때라던가 그 밖에 가족이 즐겁게 자리를 함께 했을 때 돌아 가면서 가족 하나하나에 대하여 스스로가 느끼는 훌륭한 점, 좋아하는 점에 관하여 얘기해 보도록 합니다.** 대개 우리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까지도 긍정적인 협조나 배려를 등한히 하고 있습니다.

**6. 자기의 가치를 발표하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할 것.** 대화를 독점하거나 남의 이야기를 주의깊게 듣지 않는 사람은 은연중에 자기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시사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참 가치를 아는 사람은 남의 재능을 발견했을 때 그런 것을 자기가 갖지 못하였다고 하여 염려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기와 다른 재능을 가진 사람을 발견한 것으로 흥분할 것입니다.

**7. 스스로의 단조로운 버릇을 개선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 늘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되도록이면 새로운 길로 가도록 해보며 늘 하던 일도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해 봅시다. 그리고 때로는 전혀 기호에 맞지 않는 것도 읽어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눈으로 자기의 하잘 것 없음으로 하여 낙담하지만 스스로에 관심과 흥미를 갖는 사람은 평온과 안정과 결허함을 보여줍니다.

이상 열거한 사항은 총체적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자기 개선을 위한 훌륭한 방법의 보조 재료는 될 수 있을 줄 압니다. 자기를 완전히 아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노력과 시도입니다. 계속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자기의 가치 보다는 다른 사람의 가치를 더욱 높히 평가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





# 하얀 하나님의

● 고대 미 대륙의 위대한 하얀 하나님은 아직도 살아 계시다! 발견된 고고학자와 역사가의 문헌에 의하면 하얀 신의 존재는 더욱 부동의 사실이다. 오랜 세월을 원주민의 전설 속에 살아온 신비의 이야기는 이제 근대 연구로 인하여 신비의 베일을 벗게 되었으며 최근에 발견된 옛 기록에서 우리는 지구의 서반구에 역사하신 지존자의 업적과 실재의 모습을 보게 된다.

하나님은 참으로 그 곳에 계시다!

그는 친히 미 대륙에 오셔서 콜럼버스가 오기 훨씬 전에 그 땅을 밟으셨다.

그는 고대 원주민에게 그의 참된 종교를 가르치셨으며 저들의 조상을 죽음에서 이르키시며 병든 자를 무수히 고치시고 보다 새롭고 효율적인 농사법을 가르치셨으며 자유와 평등의 정부를 수립하게 하셨다.

그는 초자연적인 질서에 따라 홀연히 오셨다가 홀연히 가셨다.

옛 원주민은 그를 창조주로 알았고 창조주께서 친히 육신으로 세상에 오셨다고 알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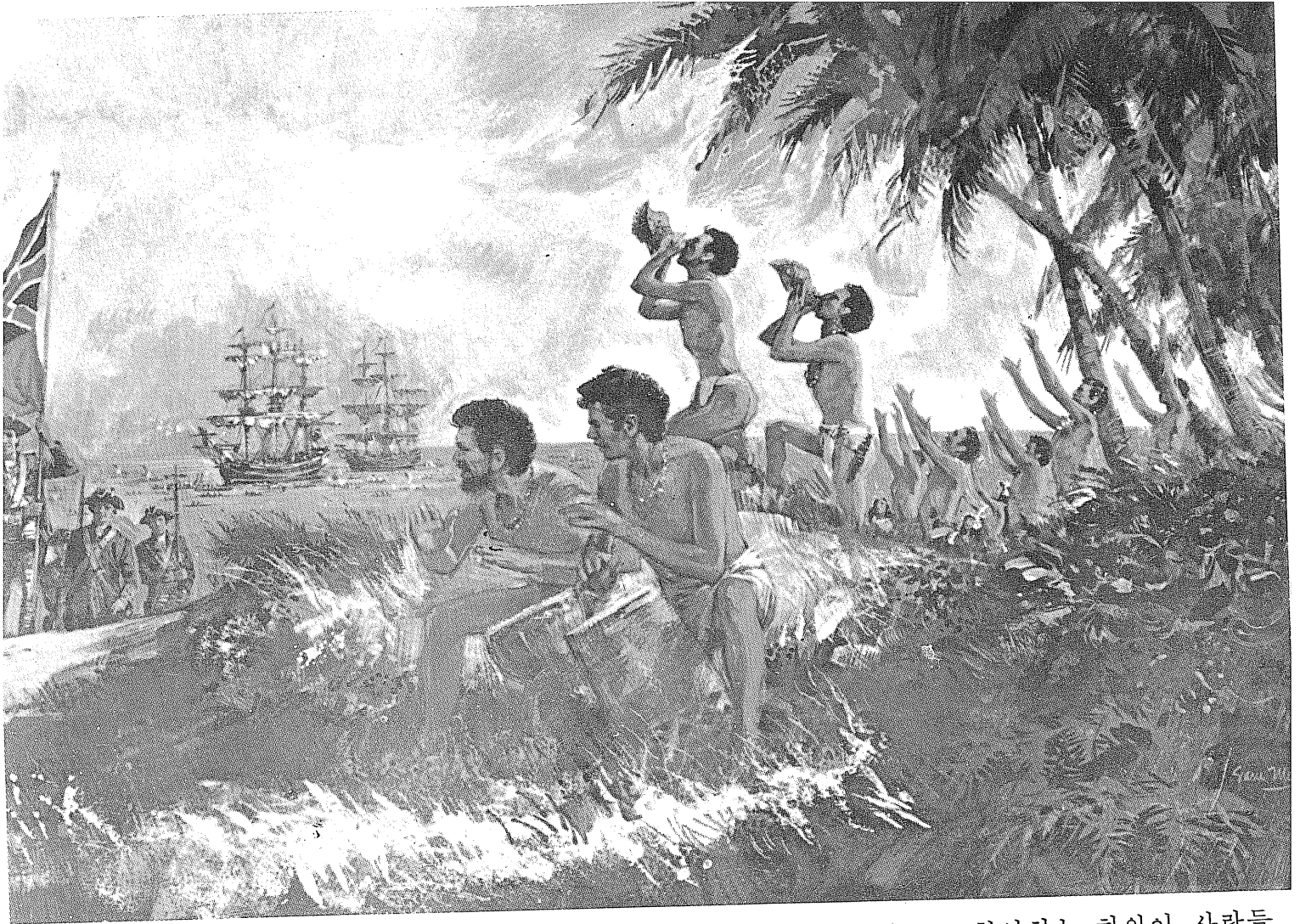
이제는 산처럼 쌓이게 된 수많은 증거를 놓고 누가 감히 신의 존재를 거부하겠는가?

그가 기독교의 지존자이심을 거부할 자 없으리라.

그의 가르치신 바가 성경의 내용과 일치함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증언한다.

그가 다시 오시리라고 한 약속을 많은 사람이 믿으며 이는 경전에 기록된 바요 역사의 기록이 입증하는 사실이다.

고대 미 대륙의 하얀 신에 대한 전설은 칠리에서부터 알라스카에 걸쳐 살았던 옛 인디안들의 대대로 이



죽 선장을 하나님으로 환영하는 하와이 사람들

# 실재

마크 이. 피터슨 십이사도

어진 전언 속에 오래 전달되어 왔다. 또한 하와이에서 뉴질랜드에 이르는 폴리네시아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안겨 주었다.

비록 서로의 지역은 달랐으나 전달된 전설의 내용은 서로 일치하였다. 물론 섬과 섬에 따라 이름이나 전언의 내용은 지엽적인 부분이 조금씩은 달랐지만 대체적인 뜻, 말하자면 대의에 있어서는 위대한 하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에 일치하고 있다. 그는 이들 원주민의 조상들에게 와서 잠시 교역한 후 떠나셨다. 더러는 그가 하늘로 승천하셨다고도 한다.

파울 헐만은 그의 저서 「인간의 정복」에서 하나님의 실재에 관한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이 문제를 주의 깊게 연구해 보면 빛나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서반아의 선전을 위한 창작어도 아

니오 황당한 인디안의 환상의 이야기도 아닌, 다만 실재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72페이지)

멕시코의 퀘즐코틀로 알려진 곳은 원래는 초루라지방이었다. 지아바스에서는 신을 보탄이라 하였고 오자카에서는 워크스페코차, 과테말라에서는 구크마쓰, 페루에서는 비라코차 혹은 히스투스, 브라질에서는 수메, 콜롬비아에서는 보치카라 하였다.

페루 사람들에게 흰신은 콘티치 혹은 일라티치로 알려졌었는데 티치란 말은 창조주란 뜻도 되고 빛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된다. 마야 사람들에게는 쿡쿨칸으로 통한다.

폴리네시아 열도에는 로노, 카나, 케인콘, 카나로 아등으로 알려졌으며 그 뜻은 위대한 빛 혹은 위대한 광명이다. 위대한 선조라는 뜻의 케인—아케아, 대양





과 태양의 신이라는 뜻의 탄가—로아로도 알려져 있다.

그러면 위대한 하얀 하나님이란 도대체 어떻게 생긴 분이신가?

키가 크고 빛이 희고 수염이 많고 푸른 눈을 가진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또한 좀 느려진 긴 성의를 입고 하늘에서 와서 하늘로 다시 돌아가신 것으로 전해져 있다.

그러면 그가 오셨을 때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시며 절름발이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소생케 하셨다. 그는 보다 복된 삶을 가르치셨고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하라고도 하셨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고도 하셨으며 늘 친절과 사랑을 베풀라고 하셨다.

그는 위대한 권세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신 분이였다. 그는 산을 평야로 바꾸거나 평편한 들을 높은 산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었다. 그런가 하면 바위에서도 물이 솟아나게 하실 수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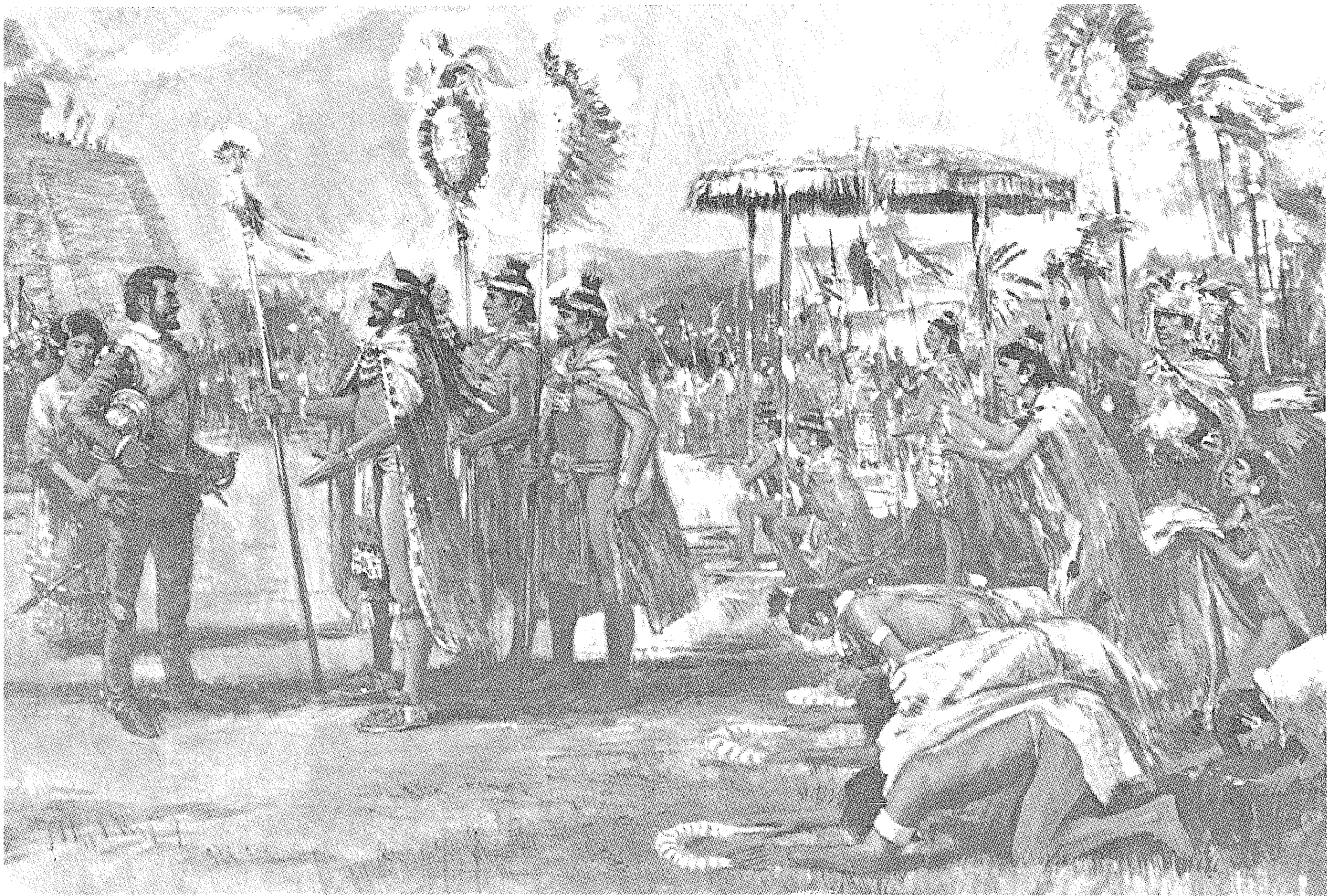
인류가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치시기도 했고 더욱 많은 것을 배우도록 권장하셨으며 개량

된 농사법도 가르치셨다.

그가 오실 때 있었던 놀라운 표적으로 그가 오시기 전에 암흑이 계속되었다는 사실이며 암흑이 계속될 동안 사람들은 해를 돌려 달라고 간구하였던 것이다. 어둠이 계속돼 있는 동안 “저들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였고 저들이 믿고 있던 신에게 빛을 돌려 달라고 간구하였다.” 빛이 돌아 오자 “거대한 체구의 흰 분이 나타나셨으며 주변에는 존경과 능력이 뿜돌았다. 사람들이 그의 능력을 보고 만물의 창조라고도 하였고 만물의 시작이 되는 분 혹은 태양의 아버지라 하였다.”(인카)

이분은 백성들에게 자기의 종교를 가르치셨고 예배할 신전을 지으라고 하셨으며 그의 신봉자들은 점점 더 헌신적인 태도로 임하였다(하얀 하나님의 탐구 16 페이지) 그가 그 백성들에게서 떠날 때 그는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이로서 백성들은 옛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기다리듯 그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게 되었다. 그러나 서반아인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그리고 쿡 선장이 하와이 열도를 항해했을 때 이러한 저들의 신앙은 불행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서반아의 정복자들이 남미에 도착했을 때 어떤 피



### 콜테즈를 다시 오시는 하나님으로 맞다

사로의 사관 하나가 갑옷과 투구로 무장을 하고 빛나는 마스크를 하고 해변을 거닐고 있었다. 참으로 인상적인 차림새 였다.

원주민들은 놀라움으로 그를 바라 보았다. 하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 젊은 사관이 접근하자 마침내 이들은 무릎을 꿇고 “비라코차”를 연발하였다. 놀란 것은 사관이었다. 원주민들은 더욱 가까이 접근하여 그를 에워쌌다. 사관은 차츰 위급함을 느끼게 되었다. 그는 둘러싼 원주민을 홀어 버리고자 공포를 쏘았다.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일파 티끼”를 합창했으니 그 뜻은 “천둥의 하나님”이란 것이었다.

인디안들은 그가 저들의 하얀 신 비라코차라고 생각하였고 그의 총으로 천둥과 번개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헬난도 콜테즈가 1520년 멕시코에 도착했을 때 그도 재림하신 하얀 하나님인 것으로 원주민들은 믿었다. 섬의 원주민들은 그가 큰 배를 타고 흰 복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급히 저들의 대장 몬테주마에게 달려가 위대한 하얀 하나님이 돌아 오셨다고 고하였다.

몬테주마는 깜짝 놀랐다. 그는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제사중의 하나였던 아즈텍이 한 이야기를 금방 기

억했다. “이것은 당신의 보좌가 아니오. 오직 당신에게 잠시 빌려준 것 뿐, 언젠가는 그 보좌의 주인에게 돌아 갈 것이오.”(하얀 신의 탐구 66페이지)

몬테주마는 즉시 콜테즈를 영접하고 아즈텍 종교가 가르친 그 하얀 신에 대하여 지고 있는 은혜를 값기로 계획하였다. 값진 선물을 콜테즈에게 바치고 온갖 재물을 다 그에게 올렸다. 그리고 실제로 콜테즈를 신처럼 받들었다. 그러나 곧 반란이 일었고 전쟁의 참화가 덮쳤다. 몬테주마는 그의 보좌와 생명을 잃었다. 그러나 전설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제임스 쿡 선장이 하와이 열도의 잔잔한 해역을 항해하고 있었을 때 그도 역시 하얀 하나님으로 오인되었다. 그곳 원주민들은 위대한 하얀 하나님의 재림을 오래동안 고대하고 있었다.

높은 지휘자인 쿡 선장이 큰 배를 타고 원주민들이 전에는 보지 못했던 흰색의 수병을 거느리고 있음을 보고 원주민들은 저들이 오래도록 기다리던 금발의 로노신이 오는 줄로 생각하여 쿡 선장을 신으로 영접하여 그에게 경배 드렸다.

때마침, 쿡 선장이 상륙한 때가 마카히키 축제절 기간으로서 이는 하얀 하나님 로노의 전설을 기념하



는 행사였던 것이다. 칼라니오푸 왕은 쿡 선장과 그의 일행을 영접하였다. 또한 원주민들은 이들을 위한 정중한 예식을 베풀고 이들을 로노의 신전이었던 피라밋으로 안내하였다. 놀라움에 건장한 가공할 영국 탐험가는 저들이 바치는 온갖 것을 다 받아 들였고 무엇이든지 다 받아 들이겠다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의 부하는 거친 속물들이었다. 쿡의 부하가 저지른 약탈의 행위는 곧 원주민의 분노를 샀고 이들은 쿡의 일행을 상대로 분노와 전쟁을 폭발시켰다. 이 전쟁에서 쿡은 생명을 잃었다.

그러나 거듭 이야기 하지만, 결국 이곳의 전설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입증된 것이다.

원주민들 간에 위대한 하얀 하나님의 이야기 만이 전달된 것이 아니라 그의 가르침까지 전달되어 왔던 것이다.

남자는 싸움터에 끌려가 죽는 일이 허다하였으므로 오랫동안 여자가 가족의 족보와 전언을 보존하였다. 이들이 이러한 전설을 대대로 자녀들에게 전하였던 것이다.

스테반이 중미를 여행하다가 극적으로 살아난 이야기가 있다. 이야기는 옛 과테말라 왕국과 돌첸 인디안의 역사 기록인 푼테스가 원주민에 관하여 이야기한 것을 인용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이들은 모세에 의하여 바로의 폭정에서 풀려난 이스라엘인들이었다는 것이다. 홍해를 지나자 이들은 원주민들의 영향을 받아 곧 지독한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모세를 등지고 유랑인이 된 이들은 다눙의 지휘아래 이 대륙에서 저 대륙으로 떠돌아 다니다가 멕시코 땅, 일곱 동굴이라는 지방에 다다르게 되었다. 이곳에서 이들은 틀라라는 성읍을 발견하였다. 이야기에 보면 이들의 지도자 다눙으로부터 틀라가와 쿼체가가 분리되었다고 되어 있다.

다른 전언에 보면 사형제가 가족을 이끌고 먼 동쪽에서 대양을 건너 신천지에 도착하여 새로운 성읍을 지었다고 되어 있다.

고대 퀴체 마야의 성스러운 기록인 포플 부에 보면 (오크라호마 대학 편찬) 고대 미국 원주민이 신의 삼위를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들은 또한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를 믿었고 영원한 아버지와 하늘과 땅의 창조주인 사랑하는 그의 아들을 믿었다고 되어 있다. 이들 삼위란, 카콜라 후라칸, 치피 카콜라, 렉사 카콜라이다. 이들은 모두 하늘의 심장이라고 일컬어 졌다.

포플 부에는 역시 이들 삼위 곧 세 신에 의하여 창

조가 이루어 졌으며 이들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요 주인이라고 되어 있다. 지식도 높았고 종교적이었던 고대 미국인은 성도 없고 형체도 없고 무형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으로 전해 진다. 미국 본토민들은 독립된 세 인격체로 믿었으며 인격과 성을 갖춘 완전한 사람으로 믿었다. 이들은 또한 하늘에 하늘 어머니가 계시다고 믿었다.

포플 부에 나타나는 이들 고대 미국 본토인은 전생과 전생에서 “나의 눈은 빛나고 값진 은이라”라고 하며 뿔내며 살았던 악마를 알고 있다. 악마는 나의 이는 완전한 돌처럼 빛나고 하늘의 얼굴처럼 빛나나니, 내가 태양이요 내가 전 인류를 위한 달이 아니냐”고 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악마는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려다 실패하였다. “그의 유일의 야망은 스스로 떠받들리어 모두를 다스리는 것이었다.”

고대 인디안의 경전을 상고하면 우리의 첫번 아버지나 첫번 어머니나 다 창조되지 아니 한 것”이라 되어 있다.

그런가 하면 여자가 과일을 먹으라는 피임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내가 죽지 않겠느냐? 내가 열매를 하나 취하면 나를 잃지 않겠느냐?”

큰 홍수(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도 역시 옛 미 본토인이나 폴리네시아 사람들 간에 전해지고 있다.

북부 멕시코의 야기 인디안들의 전설 가운데는 이들에게 종교의 의식을 집행하고 교역한 12사도의 한 분이 살아남은 이야기가 있다. 이들도 성찬과 비슷한 순서를 갖고 있었고 삼위의 커다란 고난을 함께 하자는 뜻으로 성찬의 상징물을 들었다.

고대 미 본토인이 생활에 있어서 종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 미국에서 이주해 온 탓으로 폴리네시아 사람도 그렇게 믿었다.

이에 관하여는 여러 저서가 있다.

위대한 하얀 하나님은 누구인가?

예수가 유대인들 가운데서 교역 하셨던 것처럼 그는 자기를 믿는 또 다른 양의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다른 양에게로 가서서 교역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은 미국 땅에서 이행되었다.

고대 미국에서는 같은 시기의 옛 팔레스타인에서 처럼 많은 선지자들이 교역하였다. 이러한 서양 선지자들은 저들의 거룩한 역사를 팔레스타인에서 처럼 기록하였고 이러한 방법으로 또 다른 경전이 준비된 것이다. 물론경으로 알려진 이 책은 하나님과 고대 미국 본토인과의 관계를 마치 성경이 구대륙의 기사들

취급하듯 다루고 있다.

물몬경은 하얀 하나님의 강림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으며 팔레스타인에서 주가 부활하신 후 물몬경의 예언은 이루어 졌다. 그 때에는 미국 대륙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 그 중에는 그리스도가 그 땅에 오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더러는 비웃기도 하였다. 믿는 자들은 주를 섬겼고 조롱하는 자들은 사악의 길을 택하였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팔레스타인에 큰 지진이 일어났고 서쪽 신대륙에는 이보다 더 큰 지진과 폭풍이 휩쓸고 지났다. 물몬경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기록되어 있다.

“삼십 사년에 이르러 첫 달 넷째 날에 그 땅에는 일찌기 없었던 큰 태풍이 일더니

무서운 폭풍우가 몰아치고 심한 천둥이 울어 땅이 갈라질 듯 진동하였고 그 땅에 일찌기 없었던 번개가 요란하더니

제이라헤물라 성에 불이 붙었고……(니삼 8:5-8) 기록에 보면 그때의 피해가 대단한 것이었다고 되어 있다. 큰 길은 허물어지고 마을은 파괴되고 지면은 모두 뒤죽 박죽이 되었으며 이러한 일이 사흘이나 계속되었다.

그 후에……“질은 암흑이 온 지면을 뒤덮었고, 쓸어지지 않고 살아남은 주민들은 그 어두움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한다. (니삼 8:20)

삼일 동안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더니 음성이 들려왔다……“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확신”하였다:

“이 때에 다시 백성들에게 음성이 임함에 모든 백성들이 이를 듣고 증거하였으니, 일렸으며, 오 너희 무너진 큰 성에 거하던 백성인 야곱의 후손들아 너희는 참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라. 암탉이 그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어 거둬들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너희를 모았으며……암탉이 그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너희를 모으려 하였더냐……”(니삼 10:3-5)

며칠 후에 많은 무리가 바운티폴 땅의 신전에 모였을 때 또다시 음성이 세 번 되풀이 되어 들려왔다.

“보라 세번째 소리가 들릴 때 이를 깨달아 듣게 되었으니, 소리가 무리에게 고히여 이르기를,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로 인하여 나의 이름이 영화로움을 받았으니, 저에게서 들으라 하시느니라.

우리가 이를 알아 듣고 눈을 들어 다시 하늘을 우러러 보니, 보라 저들이 봄에 하늘로 부터 인자가 하

강하시는데, 흰 옷을 입으셨더라. 저가 하강하시 무리 가운데 서심에, 온 무리의 눈이 저에게로 향하였으나, 감히 입을 열지 못하였고, 저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였으니, 무리는 혹 천사가 저들에게 나타난 것이라 생각하였느니라.

이에 저가 손을 앞으로 내미시며 백성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선지자들이 세상에 오리라고 증거한 바 예수 그리스도라.

보라 나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쓴잔을 마시며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고, 태초로부터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행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자 무리가 땅에 엎드려졌으니, 이는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후에 저들에게 나타내어 보이시리라고 한 예언된 말씀을 저들이 기억하였음이라.

주가 다시 저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일어나 내게로 와서 너희의 손을 나의 옆구리에 넣어 보고, 내 손과 발의 못자욱을 만져 보아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음을 당한 온 땅의 하나님임을 알라.

이에 무리가 앞으로 나아가 손을 주의 옆구리에 넣어 보며, 그 손과 발의 못자욱을 차례대로 한 사람씩 모두 만져 보고 나서, 저들의 눈으로 보며 친히 만져 보아 진실로 저가 예언자들이 오시리라고 기록한 그 분이심을 알아 증거하였으니,

우리가 모두 차례대로 나아가 친히 목격하고 나서 한 소리로 높이 부르짖어 이르기를,

호산나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복되리로다 하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를 경배하였느니라. (니삼 11:6~17)

또 며칠이 지난 다음 같은 천사가 성찬의 떡과 포도즙의 축복에 관하여 말씀하셨고 병들고 고난 받는 자를 고쳐 주시며 장님을 보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셨고 기타 병든 자 모두를 고쳐 주셨다. 그는 그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침례를 베풀도록 하였고 교회의 장로를 불러 교리를 설교하셨다. 이렇게 여러 날이 지난후……“구름이 몰려와 하늘을 가린지라 저들이 예수를 보지 못하였고,

“저들이 구름에 쌓여 있는 동안 주는 저들을 떠나 하늘로 승천하셨다. 사도들은 주가 다시 하늘로 승천하신 사실을 기록하였다.”(니삼 18:38-39)

이것은 위대한 하얀 하나님에 관한 실화다. 그는 바로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였던 것이다. ○

# 믿으려는 소망!

케네드 알. 하디

● “그러나 보라 너희가 깨어나 너희의 능력으로 나의 말을 실제로 시험하며 아주 작은 신앙을 풀어보려 할진대, 비록 너희가 믿겠다는 의욕이 내 말을 조금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네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게 하라.”(엘마서 32 : 27)

싸움과 혼란으로 점철된 오늘날 신문 기사의 내용마저도 참담한 세상의 치부를 들추어 보는 이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이토록 험악한 세상에서 아기를 낳아 기르겠다는 생각을 하면 몸서리가 칩니다”라고 오늘의 참담함을 이야기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은 소음과 티끌로 가득하여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쉐익스피어 맥베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두터운 신앙을 갖게 되며 소란과 갈등으로 혼란되었다는 세상에서 아기를 낳아 기르겠다는 확신과 소망을 갖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삶이 아름답고 가치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고해요 만사가 어그러져 있다는 염세주의자들의 생각을 뒷받침 해 줄 만한 사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와 반대되는 조건도 열거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에만 근거를 둔다면 낙천주의자의 존재 이유는 지극히 희미해 질 것입니다.

우리들이 일상 생활에서 경험하는 많은 의문은 합당하다고 인정된 방법에 의하여 수집된 물적 증거에 의하여 해답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병리학자들은 종양이 악성이냐 만성이냐를 알아내며 지질학자는 암석이 용암이냐 변성암이냐 침전암이냐를 가려 냅니다. 농부는 말 두마리를 마차 양쪽에 묶어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끌게 한 다음 어떤 종류의 말이 더 센가를 판별할 것입니다. 시험 방법이 합리적인 이상 시험 결과는 상당한 신빙성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결과는 시행자의 소망이나 편견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 소망이나 신조가 어떻든 간에 같은 시험에 의한 결과는 대개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 임상 시험이나 방법론 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신앙에 대하여 이미 말했거니와 신앙이란 사물을 완전히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것들을 바라느니라.”(엘 32 : 21)

하나님의 실재와 불사불멸하심이 사실이라고 하는 증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만 회의에 찬 무신론자를 설득시키기에는 충분치 않습니다. 아무도 임상학적인 실험으로 이러한 문제의 가부를 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년 요셉 스미스가 읽었던 야고보서의 성구를 예로 들어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나 “하나님께 구하라”고 되어있고, “확고 부동한 신앙으로 구하라”는 의미 깊은 절어가 뒤 따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이야기 이겠습니다. (야고보 1 : 6—8을 참조할 것) 모로나이 역시 근본적으로는 위의 내용과 같은 이야기를 물몬경을 읽게 될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이 책의 참됨을 확신시켜 줄 것이라는 이야기인 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참 마음 참 뜻을 가지고 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로나이 10 : 4)

위의 두 가지의 약속에 나타난 공통점은 신앙으로 영적인 확증을 얻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경우 신앙이란 스스로 일하여 얻게 된 은사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일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즉 읽고 구하고, 연구하고, 탐구하며, 합당하게 생활하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물음에 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게 또 더욱 확실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을 발전시키고 영적인 확증을 얻자면 우리는 세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드리는 노력의 몇배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하나님의 존재 및 그의 선하심, 사후의 생활, 선이 궁극적으로 악을 딛고 승리한다는 사실 등의 근본적인 대답이 단순한 증거 제시의 방법이나 논리만으로는 얻어지지 않습니다. 불신자를 위한 영적인 “표적”이 언제나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표적은 믿는 자의 신앙이 있을 때만 따릅니다. 이 세상은 시험의 땅이므로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타개할 의문을 오직 신앙으로 해결하며 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신앙은 한꺼번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점차적으로

성장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훈련하고 영의 도움으로 확신을 얻게 될 때 신앙은 그 깊이와 규모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씨에 비유하려 하노라. 너희가 씨앗 하나를 너희 마음에 심었다고 하여 그것이 참된 씨, 곧 좋은 씨앗이며 너희의 불신앙으로 이를 던져버려 주의 영을 거스르지 않는다고 하면, 보라 씨앗은 너희 가슴 속에 부풀어 오르리니, 너희가 이 부풀어 오름을 느낄 때에 이제 이 씨앗이 나의 영혼을 키우며 나의 이해를 밝혀주며, 참으로 내게 감사함을 주기 시작했으니, 이 씨앗이 참된 씨앗, 곧 좋은 씨앗임에 틀림없느니라”고 너희가 너희들 자신에게 말하리라.

(엘마서 32 : 28—29)

이와같이 우리는 우리의 간증을 기르고 복음의 뜻에 온전히 마음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믿고자 하는 소망” 그 기초적인 신앙이 없으면 영적인 성장은 조금도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말하자면 영적인 암흑을 그대로 계속하여 지난다는 뜻이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가? 인간은 사망을 극복할 것인가? 의로움이 승리할 것인가?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인가? 예수는 정말 그리스도 이신가? 그 대답은 모두가 들을 수 있는 합성으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대답은 속삭임으로 전달되지만 근면함과 신앙으로 구하는 자에게는 확실하게 전달됩니다. (엘마서 32 : 41참조)○



## 인생의 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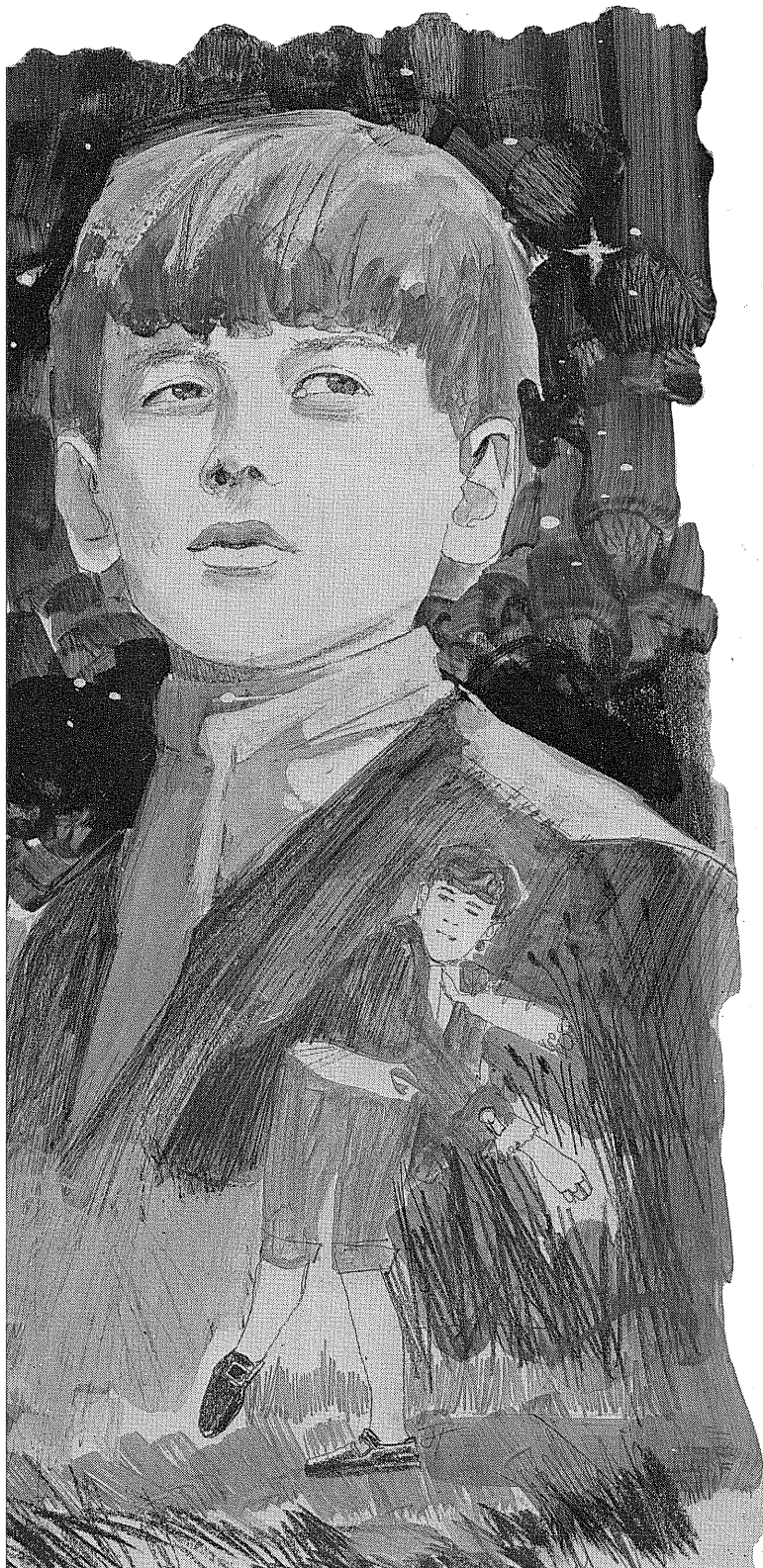
리차드 엘. 이반스

● 어떻게 인생을 살며 어느 길로 가야 할까? 라고 하는 의문은 언제나 있게 마련입니다. 영원히 만나지 않는 평행선인가? 누구에게서 사물의 용도에 관한 가르침을 받으며, 그것을 조작하는 법, 관리하는 법 등을 배워야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사물의 구조와 용도를 알려면 그것을 만들어낸 제작자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만물의 주가 되시는 분만이 인생의 목적과 인간과 인간의 성장 가능성 등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창조주께서는 평화와 건강과 행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도덕적이어야 하고 일을 해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를 알고 계십니다. 창조주께서는 우리에게 훌륭한 영혼과 육신을 주시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가르쳐 주셨고 추한 버릇이나 방종이나 불성실한 생활로 마음을 더럽히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인생은 방종이나 불성실로 처리될 수 없습니다. 자녀에 관하여 흥미나 관심을 갖지 않으면서 부모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부모는 마땅히 자녀의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인 제반 문제와 저들의 건강 및 행복을 살피 주어야 하겠습니까. 또한 자기 지식과 관련된 제반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는 아버지도 없을 줄 압니다. 그리하여 아버지는 우리들의 최상의 행복과 최고의 영광을 위한 온갖 권고, 계명, 율법, 삶의 기술 등을 장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를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삶을 누구에게 다시 위탁하겠습니까? 세상에는 현명한 사람도 많지만 온전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에 처한 사람, 문제를 가진 사람, 열심히 노력하면서 새로운 길을 찾으려는 사람들이여, 관습이나 통속적인 것에 현혹되지 말며 외관으로만 판단하지 말며 거짓 논리나 이론에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까. 오직 인생의 목적과 평화를 직시하며 무한한 한계와 영원한 발전의 가능성을 움켜 잡아야겠습니까. 필요한 것 모두를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께 구하여 얻도록 합시다. ○



# 별을 주시하는 소년

게일 테페르만 바클레이



● 흠스편 털쉐타처럼 얼굴이 빨갛게 단 나자로는 거실로부터 허청대고 뛰어 나왔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친구분들의 웃는 소리가 집 밖으로 나온 다음 까지도 머리 속에 윙윙 거렸습니다. 그는 다리가 아프고 답답한 마음 속에 심장이 두근거릴 때까지 뛰고 뛰었습니다. 마침내, 나무 끝으로 자기 집 지붕이 보이지 않을 곳에 이르러 나자로는 뛰던 것을 멈췄습니다.

“왜 그들은 나를 보고 웃었을까?” “왜 그들은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까?”

때는 1740년, 이미 춥고 음산한 겨울의 손길이 이태리 북부 스칸디아노의 나자로가 사는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숲 속 나무를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나자로 스페렌자니의 아버지는 존경받는 변호사로서 자기 아들 나자로도 역시 변호사가 되기를 바라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어떤 날, 나자로의 아버지는 그를 어둡침침한 서재로 데리고 가서 두툼고 먼지가 묻은 책과 법률에 관한 수없이 많은 서류를 손으로 가르키며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게 너의 것이 되겠지” 나자로의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나는 내 생애의 진로를 정했다. 이제, 너도 내 뒤를 이어야 한다.”

그러나 나자로 스페렌자니는 다른 길을 가고 싶어합니다. 법률이라는 것은 오래된 문제에 신중한 대답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나자로는 무엇이라고도 대답할 수 없는 이상한 문제로 머리가 아팠습니다. “왜 하늘은 푸를까?” “왜 사람은 새와 같이 나를 수가 없을까?” 왜 납작한 돌을 던지면 물 위를 가볍게 튀어가는가?”

그리고 이상한 것은 스칸디아노를 둘러싸고 있는 숲 속 깊은 땅 속으로부터 솟아오르는 자연 샘이었는데 무엇이 샘물을 솟아 오르게 하는 것일까?

나자로는 샘물에 관하여 아버지께 물어보았습니다.

“ 먼 옛날, 부모들의 말을 안듣던 아름다운 다섯 소녀가 숲 속으로 소풍을 나갔다가 길을 잃었지.” 나자로의 아버지는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어찌할바를 몰랐단다. 그들은 울음으로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도 그 울음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들은 다시는 보이

지 않게 되었고, 그들의 눈물은 샘물이 되어 땅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것이란다.”

부모를 존경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나자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만 마음 한구석에는 샘물에 대하여 어떤 다른 설명이 꼭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나자로는 난로 앞에 앉전히 앉아 바닥에 퍼져있는 흥미 없는 법률 서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꾸부린 아버지의 어깨 넘어로 나자로는 겨울 하늘에 별의 무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왜 어떤 별은 다른 별 보다 더 빛이 날까? 별은 모두 어디서 왔을까? 별이 있는 곳은 얼마나 멀까? 별있는 곳까지 갈 수 있을까?”

“내 말은 듣지 않고 무엇을 보고 있지?”

“별요!” 나자로는 명백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별의 크기는 모두 같을까요?”

나자로의 아버지는 화가났습니다. “그래 별이 얼마나 큰지 내가 어떻게 아니?” 아버지는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걱정을 하니. 존경 받는 변호사가 될테냐 아니면 할일없이 별만 쳐다 보는 사람이 될테냐?” “어느 쪽도 아니예요.” 나자로는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과학자! 너는 라틴어, 그리스어나 불어를 읽을 수 있느냐? 너는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느냐? 너는 논리학의 질문과 답을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며 나자로의 아버지는 그의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다. 나자로 너는 과학을 하지 말고 법률을 계속해야 된다. 너는 꼭 변호사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의 말씀은 나자로에게 뜻밖에 생각이 나게 했습니다. 그 생각은 그렇게도 여러번 응시하던 별처럼 그의 머리 속에 빛났습니다. 아버지는 아주 큰 서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친구분들도 서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필요한 책을 찾았습니다. 그는 혼자 힘으로 배웠습니다.

저녁때 마다 나자로는 난로 앞에 앉전히 앉아 흥미 없는 법률 서적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한가지 사안에

대한 경우, 흥미없고 복잡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했기 때문에 법률 공부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절약하여 나자로는 그리스어, 불어, 논리학과 라틴어등 그 밖에 다른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숲 속에서 수학 책을 가지고, 샘물이 흐르는 옆에 앉아, 막대기 끝으로 땅 위에 숫자들을 써가며 합계를 내곤 하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머리가 아플때까지 공부했습니다. 지금 나자로 스페렌자니는 법에 관한 호기심을 가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선생이 없이도 공부할 수 있을 만큼 배웠다고 생각한 나자로는 그날이 온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서 추운 겨울철 오랫동안에 걸쳐 실험한 것들을 설명드렸으나 아버지께서는 말도 붙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 그건 참 잘했다.” 나자로의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그런 정도 안다고 자신이 과학자나 된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냐? 희랍어 몇 마디, 수학 문제 몇개 안다구! 나자로, 어리석은 짓은 아예 단념하는 게 좋다. 다른 생각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변호사가 되어라.” 비록 아버지께서 자기를 이해해 주지 못하기는 하지만 꿈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그 때에 가장 훌륭한 과학자로 알려진 과학자 중의 한 사람인 발리스니에리를 찾아 갔습니다.

“그렇게 과학자가 되고 싶다면,” 발리스니에리는 말했습니다. “종구 말구. 그러나 지금까지 법률만 공부를 해 왔으니 과학은 포기하는게 좋지 않을까? 애야 네가 과학에 대하여 아는게 뭐냐?” 나자로는 발리스니에리의 제일 좋은 펜으로 희랍어와 불어를 완전하게 써 놓았습니다.

“흐음” 발리스니에리는 말했습니다. “또 무엇을 아니?” 발리스니에리는 나자로로부터 펜을 받아쥐고 수학 문제를 여러 개 써 놓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 수 있겠냐?”

나자로는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를 풀었습니다.

발리스니에리는 코수염이 달린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뒤에 있는 선반에서 책을 꺼내 썼습니다.



“여기 있군” 발리스니에리는 말하면서 떨리는 나자로의 손에다 책을 쥐어 주었습니다. “이 문제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아라”

나자로는 5분 동안이나 문제를 들여다 보았습니다. 풀이 죽은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책을 저명한 과학자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모르겠는데요”라고 나자로는 말했습니다. “못 풀겠습니다.”

발리스니에리는 기쁜듯이 머리를 쳐들며 웃었습니다. “그래! 너는 총명하기도 하지만 정직도하구나!” 그는 만족스러운듯이 말했습니다. “애야, 저 문제는 아직까지 푼 사람이 없단다. 내가 보니 넌 과학자로

태어난 것 같다. 귀한 시간을 어리석게도 법률 서적이거나 보느라구 소일해 버렸구나. 왜 너는 그런 짓을 했니?”

“저희 아버지께서는 변호사가 될 것을 강요했습니다.”

“흥!” 발리스니에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자, 아버지와 함께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들은 햇빛이 비치는 나자로의 집에 함께 갔습니다. 나자로는 발리스니에리씨가 벽난로 앞에서 아버지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고개를 숙이고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넌의 아들은 과학자가 되려 합니다.” 발리스니에리씨는 탁자를 내려치면서 외쳤습니다. “그는 우리들 스칸디아노의 마을을 영광되게 할 것입니다. 그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는 갈릴레오와 같은 과학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나자로의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결정할 일이지요.”

발리스니에리씨는 잠잠해 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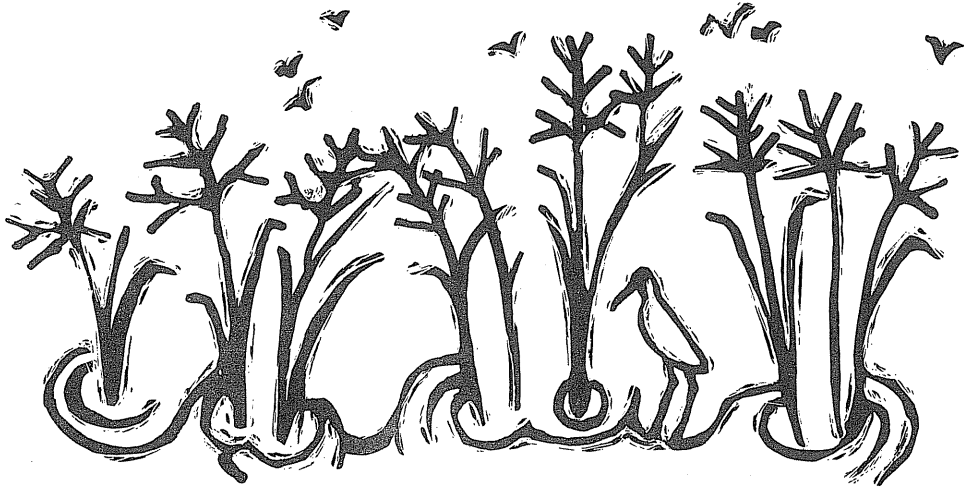
나자로의 아버지는 방안에 가득 차 있는 법률 서적과 서류를 오랫동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다음 그는 나자로를 쳐다 보았습니다. 나자로가 고개를 들었을 때 주의깊게 쳐다보는 아버지의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레기오, 대학의 새 학기가 며칠 안되어 시작될 것이다.” 나자로의 아버지는 마침내 말씀하였습니다. “그때까지 준비할 수 있겠니! 천문학자로?”

나자로는 얼마동안을 너무도 의외여서 아버지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은 감사함과 기쁨에 넘쳐 나자로는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나자로 스페렌자니가 튀는 돌의 역학에 관한 과학적 논문을 발표하고 호머의 시를 번역하며 너무 작아 눈으로 볼 수 없는 미생물의 신비를 발견하여 훌륭한 연구가로서 이태리의 제일가는 과학자요 탐구자로 불리워 지는 날은 왔습니다.

그러나 나자로는 이태리 북부의 소년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던 소년이었습니다. 호기심을 갖고 별을 주시하던 소년이었습니다. ○



## 큰 고랭이 조반

요안나 씨. 밀러

● 큰 고랭이 조반! 어디서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며 그 맛은 어떨까?

고대 애굽 사람들이 즐겨 이 음식을 먹었으니 아마 그들은 대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애기 모세가 물에 떠내려 갈 때에 담겼던 바구니가 큰 고랭이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들으면 이것은 상당히 질긴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아주 적당하게 요리할 줄 알았다. 세모꼴인 이 풀의 껍질은 아주 단단하지만 그 속은 연하다. 그들이 음식으로 사용했던 부분은 바로 이 속이었다.

큰 고랭이로 만든 카누 보트나 작은 배로 유명한 곳은 나일강이다. 이 작은 배는 때로는 애기 모세가 탔던 것처럼 그 안을 방수 흙으로 바르기도 한다. 이 방수 흙은 검정색의 아스팔트라고 하기도 한다.

나일강의 보트 놀이는 참 재미있는 것일 것이다. 강 옆으로는 큰 고랭이 풀이 줄지어 자란다. 목이 긴 이 풀은 때로는 십척의 높이로 자라며 그 위엔 작은 갈색 꽃이 피어 난다. 간혹 수면 전체가 이 큰 고랭이 풀로 덮힌 곳도 있다. 제비가 곤충을 쫓아 풀 위를 나르고 흑백색의 이비드 새(백노 같은 새)는 물고기를 쫓아 얕은 곳을 급습한다. 큰 악어가 물 위를 떠다니거나 강변에 누워 있는 정경이 보이기도 한다. 근처에는 악어의 친구 악어새가 악어의 잇빨을 쪼며 그의 두꺼운 등에 서식하는 기생충을 잡아 먹는다.

그러나 큰 고랭이 풀, 때로는 “애굽의 갈대”로 불리는 이 식물은 작은 보트를 만들거나 요리용으로 쓰

이는 이외에도 그 쓰이는 용도가 상당히 크다. 고대 애굽 사람들은 이 풀을 뿔감으로 사용하기도 했고 쉼탈을 만들어 신기도 했고, 옷을 만들거나 페인트 붓을 만들거나 밧줄, 멍석 등을 만드는 데도 사용했고 심지어는 이 풀로 종이를 만들기도 했다.

큰 고랭이의 다른 이름은 파피루스이며 여기에서 영어의 페이퍼라는 단어가 파생한 것이다. 큰 고랭이를 스무개쯤 함께 붙여 긴 두루마리를 만든 다음 막대기나 쇠막대에 둘둘 말아 둔다. 고대 기록의 대부분이—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히랍 사람들이 기록한—이러한 파피루스 두루마리에 기록되었던 것이다.

모세의 때에는 기름 등에서 굵은 그늘음을 풀이나 고무 액이 섞인 물에 풀어 만든 잉크와 갈대 축으로 만든 펜이 사용되었다.

파피루스 종이 한장을 만드는데 얇게 썬 큰 고랭이 풀 2개가 들었다. 얇게 썬 것 중 큰 것부터 위쪽 오른편을 중심으로 넓은 판 위에 놓아 만드는데 넓은 조각의 큰 고랭이 쪽으로된 종이가 제일 값이 나간다. 두 쪽으로 된 것은 나일 강에 담가서 서로 풀로 붙이기에 편리하도록 한다. 그런다음 서로 붙여 눌러 두거나 두드린 다음 조개 껍질이나 상아로 갈아서 평평하고 매끄럽게 만든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녀를 이끌고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떠날 때 과연 이런 종이를 가져 갔는지 흥미있는 일이다. 그가 기록한 것 중에 파피루스 두루마리도 혹 있는지? 누가 알까? 언젠가는 밝혀질 날이 있을지도 모른다. ○



# 관리 감독단이 젊은이에게 주는 말씀 가정

존 에이치. 반덴버그

● 동물의 세계에서는 오랫동안 가족으로의 유대가 계속되는 상태를 찾아 보지 못한다. 대개는 어미가 홀로 새끼를 보호한다. 동물의 왕국에서는 새끼들은 짧은 기간 동안만 어미나 혹은 그 부모와 함께 생활을 한다. 말하자면 생존의 방법을 배우는 동안에만 함께 사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세계에서는 가족으로의 유대가 오래도록 계속된다. 사람의 자식이 태어날 때부터 다른 동물보다 훨씬 영특하지만 부모가 함께 데리고 있으면서 가르치는 기간은 더 길다. 이렇게 더 오랜 시간을 함께 하면서 가르치는 이유는 듣지 않아도 명백하다. 어린 아이는 단순한 생존의 방법 이외에도 많은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젊은 사람의 가정은—영원의 의미로 보아도—그가 다닐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대학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상에는 가정에서만 가르쳐지는 많은 훌륭한 것을 받아 들이지 않는 젊은이가 허다하다. 이들이 가정의 잇점을 받아드리지 못하는 첫번째 이유는 주님께서 자기들을 태어나게 해 주신 그 부모를 존경하고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말세의 이야기를 하는 중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기록한 바 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히브리5:8-9)

부모의 가르침이나 권고에 따르지 않는 자는 참으로 순종의 법을 배울 기회를 속절없이 허송하는 자들이다. 부모에게 복종하므로써 복을 받는다는 사실은 전혀 새로운 것이 못된다. 고대 미 대륙의 옛 선지자 니파이가 그토록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그토록 권능이 큰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의 부친의 뜻에 기쁘게 따르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이 니파이의 부친 리하이의 기록에 잘 그려져 있다.

“주께서 내게 명하사 너와 너의 형들을 레이밴의 집에 보내어 기록을 찾아 광야로 가져오게 하라 하셨느니라.

“이제 보라, 네 형들은 내가 저들에게 명한 일이 어렵다 하여 불만을 토하였으나 보라 이는 나의 분부가 아니요 하나님의 명이니라.

“그러하니 가라 나의 아들이, 네가 나의 분부에 거역하지 아니 하였으니 주님의 사랑을 입으리라 하신 고로

“나 니파이는 부친께 이르기를 주님께서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명하시는 대로 이룰 수 있는 방편을 미리 마련치 아니하시고는 명하지 않으심을 제가 아오니 주께서 명하신대로 가서 행하겠나이다 하였더라.”(니일 3:4-7)

젊은이가 가정에서 배워야 할 또 다른 삶의 교훈은 감사의 교훈이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는 젊은이를 존중하고 아낀다. 그렇더라도 젊은이들은 예나 다름없이 부모에 대한 의무를 다 해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출애굽기 20:12)고 하셨다.

부모가 제일 마음을 상하는 것은 불손한 자식들의 언동 때문이다. 젊은이가 그 언동 속에 조금도 감사함에 대한 표시를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아직도 철부지임을 뜻하는 것이다. 감사를 정말 안다는 것은 신사나 숙녀로의 성장이 성숙했다는 표시이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다음과 같이 감사에 대하여 말한 적이 있다.

“나는 특히 남에게 접대해야 하는 직업에 종사하게 될 때 내가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

하지 않으며 내가 진 빛을 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인생 여로에서 나는 수많은 사람으로 부터 친절 한 대우를 받았고 하나님으로 부터는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 사람들에게 받은 친절을 나는 그 이웃에게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내 형제에게 기쁘게 봉사 하겠다는 의지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입은 은혜에 답 하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 주 감사와 은혜를 되풀이 한다 하여도 우리는 서로 서로의 임무를 끝 내는 것이 아니며 창조주에 대한 임무는 더욱 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다.” (프랭크린의 증언” 기독교인의 신앙록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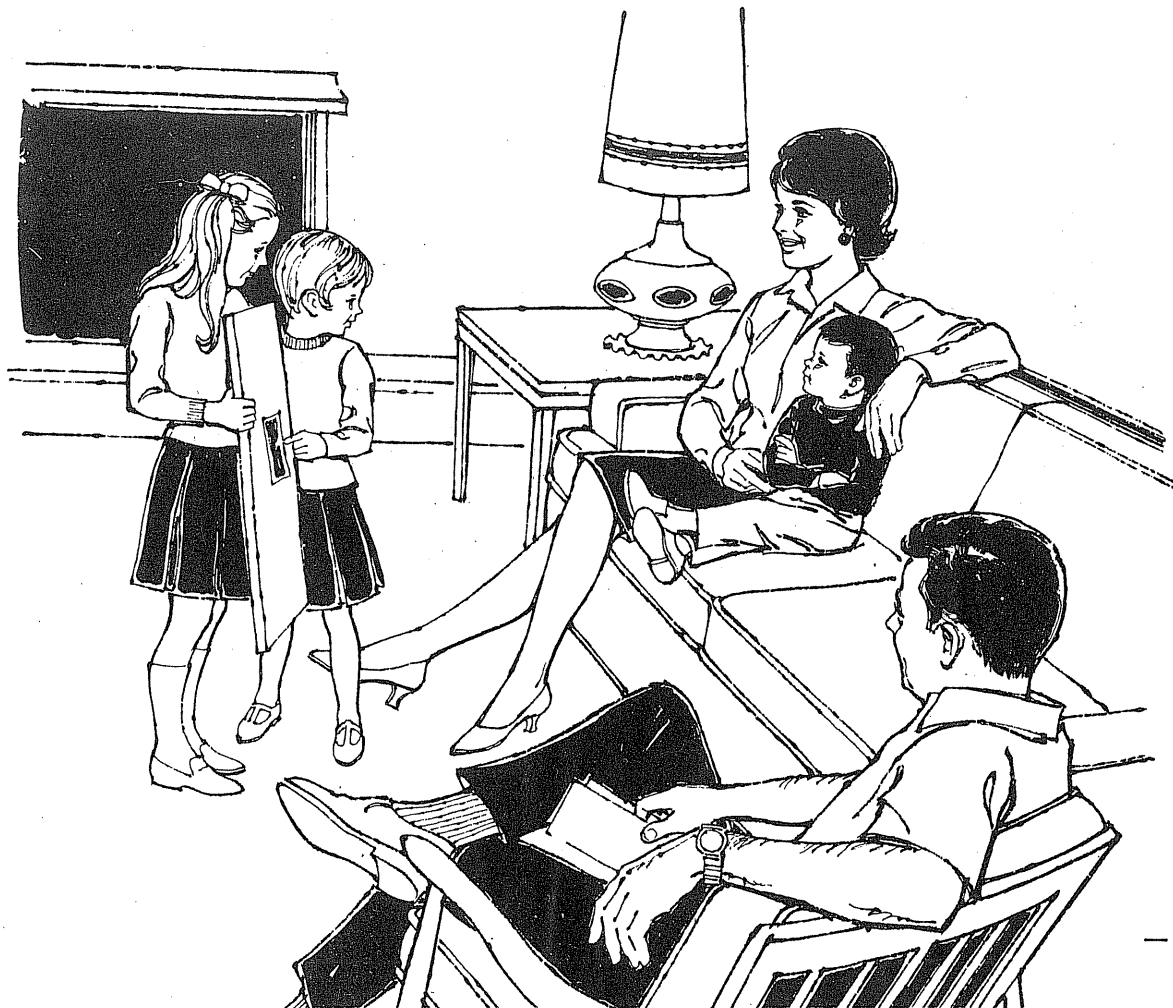
가정이 제공하는 또 다른 교훈은 참된 작업과 부과 된 책임을 수행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 하겠다. 그리스도는 요셉의 목공소에서 일하였고 다윗은 그의 아버지의 가축을 돌보고 먹였다. 아브라함 링컨은 그의 부친을 도와 울타리 쌓는 일을 하였고 요셉 스미스는 그의 아버지의 농장에서 일하였다.

가정에서 책임을 서로 나눌 기회는 옛날에 비하여 훨씬 줄어든 것 같지만 아직도 정원을 돌본다던가 침구를 정리한다던가 설거지일 집안 청소 세탁등등의 일거리가 얼마던지 있다.

남녀를 막론하고 마음이 다져진 젊은이는 하루하루의 일을 일상의 작업으로만 생각지 않을 것이며 가치 있는 교훈을 배우는 기회로 삼을 것이다.

가정은 젊은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갖추어야 할 많은 교훈을 가르쳐 준다. 대개의 경우 이들 젊은이가 가정에서의 교훈을 얼마나 잘 배우느냐에 따라 그 장래의 성패가 결정된다.

동물의 세계와는 달라서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게는 이들에게 생존의 방법 이상을 가르쳐 주는 부모가 계신 가정이 있으며 이곳에서 이들은 삶에 필요한 많은 위대한 교훈을 배우게 된다. 그러나 정말 이토록 위대한 교훈을 직접 배워야 할 책임은 젊은이들에게 달려 있다. ○



# 자녀

## 목표, 이해,

● “반드시 훈련이 필요한가?”에 대한 대답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로 아주 명백하고 또 당연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왜, 어떻게 훈련하며 인도하느냐에 관하여는 그 대답이 분명치 않습니다. 전혀 장래의 일을 예기하지 못한다면 훈련이라든지 안내에 관련된 모두가 달갑지 않은 경험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비는 오리들이 노는 연못 가에서 놀고 있었는데 마침 아버지가 보비를 집안으로 들어오라고 불렀습니다. 보비는 천천히 그의 아버지에게로 다가와서 진흙 투성이의 그의 발과 젖은 바지가랑이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보비의 아버지가 흙투성이와 젖은 바지를 보자 그의 아버지는 엄한 목소리로 “도대체 몇번 이야기 해야 너는 물가나 진흙 밭에서 놀지 말라는 이야기를 기억하겠니? 너 나가서 버드나무 회초리 하나 해 와라. 버드나무 맷을 맞아야 기억하겠지”라고 말했습니다. 보비는 천천히 나갔다가 몇 분 후에 들어 왔습니다. 이번에는 손을 뒤에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음성은 여전히 준엄했습니다. “버드나무 회초리는 내게 주어야지.” 보비는 두 손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회초리 대신 돌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작고 낮은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드나무 회초리는 찾을 수가 없던 걸요. 그렇지만 이 돌로 저를 때려 주세요.”

### 목 표

어른으로서 우리는 아이들을 교육시킬 책임을 지며 아이들의 행동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이들을 통제하는 방법, 어떤 일을 고무시키는 방법 등에 부심합니다.

이러한 교육이 어른과 아이들 사이의 의지의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싸움에는 언제나 그렇듯이 한 쪽이 반드시 승자가 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호기심과 자의적인 해명과 스스로의 존경을 경험하게 하고 성인이 승자가 되어야겠습니까, 아니면 어린 아이들이 저들의 강제와 부정과 폭력을 사용하여 저들이 승자가 되도록 해야겠습니까? 폭력을 사용하는 방법은 어느 경우라든 모험이며 피해야 하겠습니까. 우선 교육 목표로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를 알려주고 저들이 스스로의 훈련을 쌓고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도록 합니다.

### 이 해

왜 어린 아이들은 꼭 그런 짓을 하며 언제 좀 변하는지? 어린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 대로의 특별한 행동을 하는 때는 그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른들은 때로는 아이들이 왜 그런 짓을 하는가의 뒤에 어떤 것이 작용하는가에 대하여는 시간을 내어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부모가, “자 이제 울음을 그쳐. 그렇지 않으면 정말 혼을 내줄테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을 몇 번이나 들으셨는지? 이것은 마치 어린 아이들이 울어야 할 하등의 이유도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비록 어른들에게는 탐탁한 것이 되지 못하더라도 아이들의 특정한 행위는 그 연령에 따라 극히 정상적인 것

이며 계절처럼 바로 지나 버립니다. 가장 걸음으로 지날 연령에는 거칠게 화를 내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물에 집착시키려 한다든가 목표를 갖게 한다든가 등의 시도는 무리입니다.

대개 부모가 관심을 갖는 일이 서로 비슷합니다. “왜 우리집 아이는 교회에서 조용하지 못할까?” 혹은 “좀 점잖게 있어 주기를 바라는 때는 더 극성이거든요” 등등, 새로운 사태가 벌어진다든가 적응할 수 없는 여건이 주어질 때 대개 아이들은 어른이 용납하려 하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대부분의 가정에 있어서 식사 시간이 가장 곤란한 때가 됩니다. 엄마는 식사를 준비하느라고 바쁘고 어린 아이들은 지치고 배고프고 아빠와 좀 나이가 든 아이들은 집을 떠나 있다가 돌아와서 할 이야기가 많고, 이런 경우 대개는 감정이 극도로 예민해지기 쉽습니다. 때때로 아이들은 저희들이 무엇을 해야 좋은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것입니다.

### 기 술

교육에 있어서는 행동의 반응과 평가가 함께 다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 인격을 소유한 개인으로서 그와 같은 다른 인격의 개인과 대응해야 하므로 개인 관계에는 성공적인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대체적인 대인 관계를 위한 몇 개의 안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첫째, 처벌은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행실을 가르치거나 보여주지 않습니다. 처벌이 아이들의 행실을 멈추게 하거나 하지 않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것이 될 수는 있으나 해야 할 바를 가르치는 것이

# 지도의 열쇠

## 기술

브리감 영 대학교  
가정 관계 및 유아 성장담당 강사

진 라슨

되지는 못합니다.

한참 걸어다니는 아이에게 사회의 기본 테크닉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대체로 제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을 다른 아이가 갖고 있는 경우 이를 뺏기 위해서 물고 때리고 찌르고 할 것입니다. 많은 부모가 이러한 행동을 보고 화를 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린이의 무는 버릇을 고치려면 문 아이를 물어주라고 할 것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그 아이에게 과연 우리가 원하는 바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둘째로, 어린 아이의 호기심을 묵살하려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마치 성장을 정지시키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들의 호기심과 알아내고 싶어 하는 마음을 길러주도록 합니다. 자라나는 호기심에 의한 행동을 할 때에는 관용으로 용납하고 제지해야 할 때에는 극히 조심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물장난이 아마 아이들에게는 가장 무난한 놀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장난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 주어야 합니다. 엄마는 “안돼, 이렇게 부엌 바닥에서 그릇마다 물을 부어 놓으면 안돼요. 밖에서 혹은 지정된 다른 자리에서만 할 수 있어요”라고 말해 줍니다.

셋째, 어린 아이의 입장에서 사물을 관찰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무수한 어려움을 겪도록 하지 말고 어린 아이의 작업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연구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칭찬해 주므로써 이들의 언행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 아이들을 칭찬

해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근거가 있는 것은 칭찬해 주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살 쯤 된 아주 영특해 보이는 유치원 학생이 있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은 자주 이 아이를 칭찬했습니다.

“애, 넌 참 영특하다!” 하루는 그 아이의 부모가 선생을 찾아와서, “왜 선생님께서는 저희 아이더러 계속해서 영특하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너무 자기 중심의 인격이 형성되지 않을까요?” 선생은 아이들의 행동이 남의 언어나 행동에 크게 영향받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얼마 후에 아이는 기분이 언짢은 파이프공이 유치원의 배수관을 수리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리공이 거위 목처럼 생긴 부분을 뜯어 내고는 그 속에 모래가 가득 가라앉아 있는 것을 발견해 냈습니다. 수리공은 화를 낼 기세였습니다. 이 수리공을 바라보고 있던 소년은 화난 수리공을 쳐다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아저씨 우리 세면대를 고칠만큼 영특하군요” 수리공은 화를 내려던 것을 미소로 바꾼다음, “뭘! 아마 고칠만큼은 현명한 모양이지”라고 말했습니다.

넷째는 아이들에게 사랑과 친절과 온화함과 자기의 중요함을 가르치자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생활에서 배웁니다. 무엇인가를 받는대로 아이들은 남에게 줍니다.

마지막 다섯째는,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하지 않아야 할 것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가르쳐야겠습니다. 아이

들이 스스로 사리를 판단하며 결과와 책임의 한계를 깨닫도록 도와 줍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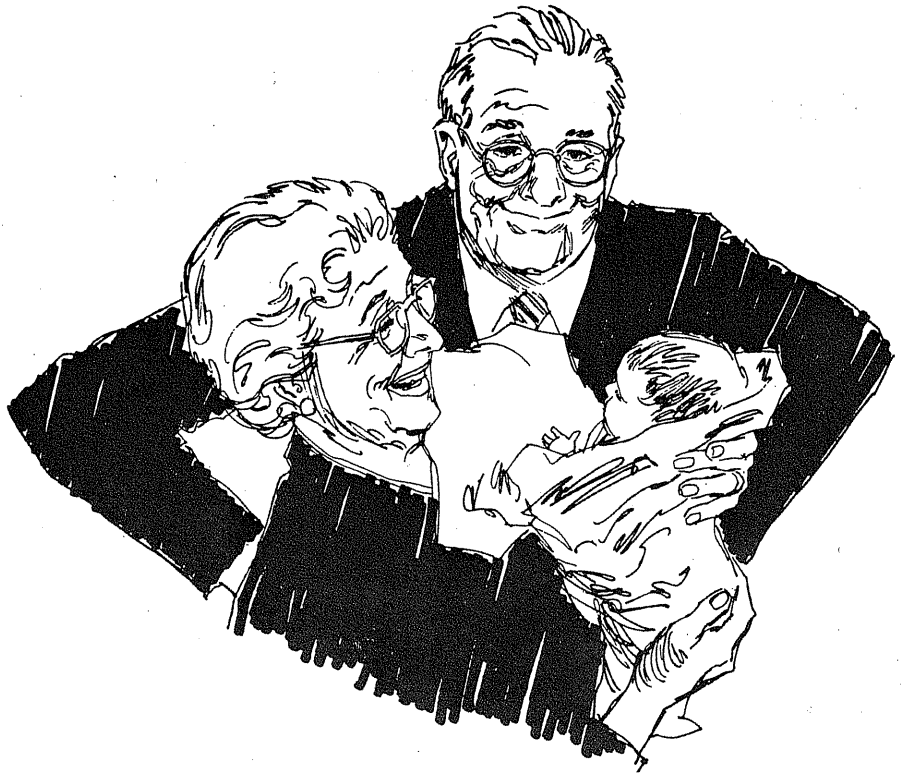
협박이나 강요와는 정반대되는 사항입니다. 어린 아이가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자기를 극기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도록 하며 두려움 때문에 자기를 극기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소녀는 공작 테이블에 앉아서 자르고 붙이고 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거의 끝낼 무렵 그는 가위로 아주 쉽게 그림의 모서리를 망칠 수도 있고 종이 조각을 자를 수도 있음을 알았습니다. 소녀는 작은 종이를 가위로 잘라서 마루 바닥에 흩어 놓았습니다. 종이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모양은 흡사 눈이 나리는 것과 같았고 얼마 후에는 마루가 정말 눈 사태가 난 뒤풀처럼 보였습니다. 선생님이 소녀에게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청소하시는 아저씨가 청소하시러 들어 오시면 이 교실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아주 궁금해 하시겠는 걸” 메리는 잠시 생각하고 나서 “제가 치워야겠는걸요. 선생님 제가 쓸어 모을때니 쓰레받기를 좀 붙들어 주시겠어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훈련 방법대로 훈련시키면서 아이들과 선선히 상의하고 설명해 주고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행동이 무엇인가를 보여서 가르치도록 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계속해서 가르치면서 시도하는 모두가 다 성공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태도로 기다리면—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는 법입니다—차차 어린 아이 스스로가 자기를 관리하고 또 자기의 가치를 확립하는 이루어의 성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



# 사랑의 기적



윌리스 에스. 피터슨

● 모든 다스림의 원리와 법칙은 인류의 행복과 복지를 위한 사랑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경전에 보면 사랑의 절정을 묘사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 3:16)

사랑은 율법이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예수께서 위와같이 말씀하셨을 때 인간은 십계명을 지키면서 하늘로의 길을 닦고 있었으며 십계명에서 파생된 다른 계명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보다 쉬운 방법을 가르치리니 너희가 두 가지—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를 이행하면 모든 율법을 이루는 것이니라”(마태 23:37-40, 로마서 13:8 갈라디아 5:14. 6:2을 참조)고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써만 우리는 이른바 기적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선행과 하나님에게의 사랑을 추구하는 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의 자녀를 지극히 사랑하셨던 까닭에 천국 회의를 가졌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영의 자녀들은 각각 자기들의 요구를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사랑가운데 저들은 원하는 바를 택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었고 사랑의 연합으로 아담과 이브는 세상에 첫번 가정을 꾸몄습니다.

세상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늘에 하늘 부모를 모시게 되었고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를 이곳에 모시고 서로 서로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주 사랑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 결혼하여 가정을 갖습니다. 새로운 탄생의 기적이 발생하고 엄마는 또 다른 사랑의 대상을 맞습니다. 어린 아이가 탄생하면 가정의 일원으로 또 서로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계획하고 희생하며 아가의 삶이 즐겁고 뜻있고 보람된 것이 되는데 필요한 모두를 바칩니다. 그가 슬프거나 행복하지 않거나 아프거나 곤난을 받거나 할 때에는 지극한 사랑으로 돌보며 그가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해 할 때에는 대견스러워 합니다.

이러한 것이 지상의 자녀와 부모 사이의 참된 삶의 모습 이라면 우리들과 하늘 부모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입니다.

부모 자식간의 사랑은 해가 지날수록 두터워 집니다. 어린 딸이 자라 숙녀가 되고 훌륭한 젊은이와 사랑을 속삭이게 되고 마침내는 결혼을 준비합니다. 결혼식이 있는 날 아침은 가족—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 모두—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고 가족 서로 서로가 나눌 수 있는 사랑에 대한 감사의 기도입니다. 이들의 감정이나 느낌이 말로는 다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로는 서로의 지극한 사랑을 마음으로 전달하고 받습니다.

세월이 지나 복된 새로운 가정에 또 다른 탄생의 복이 내려 집니다. 이 작은 아이는 부모의 사랑만이 아니라 조부모의 사랑까지를 받습니다.

새로운 사랑의 윤곽이 자리를 잡습니다. 작은 아가는 참으로 순결하고 예쁘고 사랑스러워 그대로 하늘에 속한 생명입니다. 그를 세상에 보내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의 세상의 부모와 조부모는 마음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고 조부모는 새로운 삶을 경험합니다. 이들은 아가에 대한 사랑이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임을 알고 이렇게 물

을 겁니다. “...저희가 저희 자녀를 이렇게 사랑했습니까?” 라고. 그렇습니다. 이들은 이들의 자녀를 손자들 처럼 사랑했습니다. 손자 손녀가 태어나 사랑의 체험의 세계를 넓혀주고 알려주어 이를 압니다. 이들은 이제 이들의 사랑이 아무리 뻗어 나가고 넓게 퍼져도 줄어 들거나 감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바로 이러한 까닭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개개인을 부드러움으로 보살피시고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대한 사랑의 모습을 오천을 먹이신

기적에서 찾아 봅니다. 예수는 빵 두쪽과 생선 다섯 마리로, 이를 축복하신 후 무리에게 주셨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남은 조각을 열 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마태 14:15-21 참조)

모두가 오직 사랑으로 가능하였습니다. 사랑을 나누어 주면 줄수록 우리는 더 큰 사랑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 우리의 이웃과의 끊이지 않는 복된 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예수께서 빵과 생선으로 기적을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

## 교사의 가장 가치있는 기회와 목표는 배우겠다는 마음을 심어주고 이를 불붙게 하는 것이다

린 스토타드

● 만일 주일학교 교사가 교사로서의 자기 존재의 이유를 분명히 알지 못하고 교실에 들어 섰다면 십중 팔구는 무능력한 교사요 실패를 안은 교사다. 왜 자기가 교사의 부름을 받았고 무엇을 해야 하고 얼마만큼 잘 해야 하느냐를 교사는 마땅히 알아야 한다.

주일학교 교사가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나 들려주고 아이들을 조용하도록 하는 것이 자기의 목표라고 알고 있다면 주일학교 지도서에 기록된 주일학교의 목적에 대한 그의 믿음을 다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복음을 가르치는 근본 책임은 가정에 있으며 주일학교는 가정의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주일학교의 목적은 교회의 회원과 주일학교에 참석하는 구도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데에 있다.

주일학교의 가르침은 가르침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에 대한 근본적인 신앙을 갖게 하고 신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가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회복되었으며 살아계신 예언자를 통하여 전해져 내려왔다는 간증을 갖게 해주어야 한다. (주일학교 지도서 3페이지)

###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가르침의 결과가 신회에의 신앙과 믿음의 성장이요, 복음이 참되고 온전하다는 개인적인 간증의 발전이라면 그것은

옛날 이야기를 전하거나 소란한 아이들을 조용하게 하는 이상의 것일 것이다.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을 발전시키고 간증을 기르는가? 그 가장 분명한 방법은 철저한 개별적인 노력이며—개별적인 탐구이며—금식, 기도, 연구, 명상, 공부한 복음 원리의 실행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교사의 주요 목적은:

- (1) 학생들에게 탐구하겠다는 노력을 갖게 해 주고 (2) 복음에 대한 스스로의 의문에 대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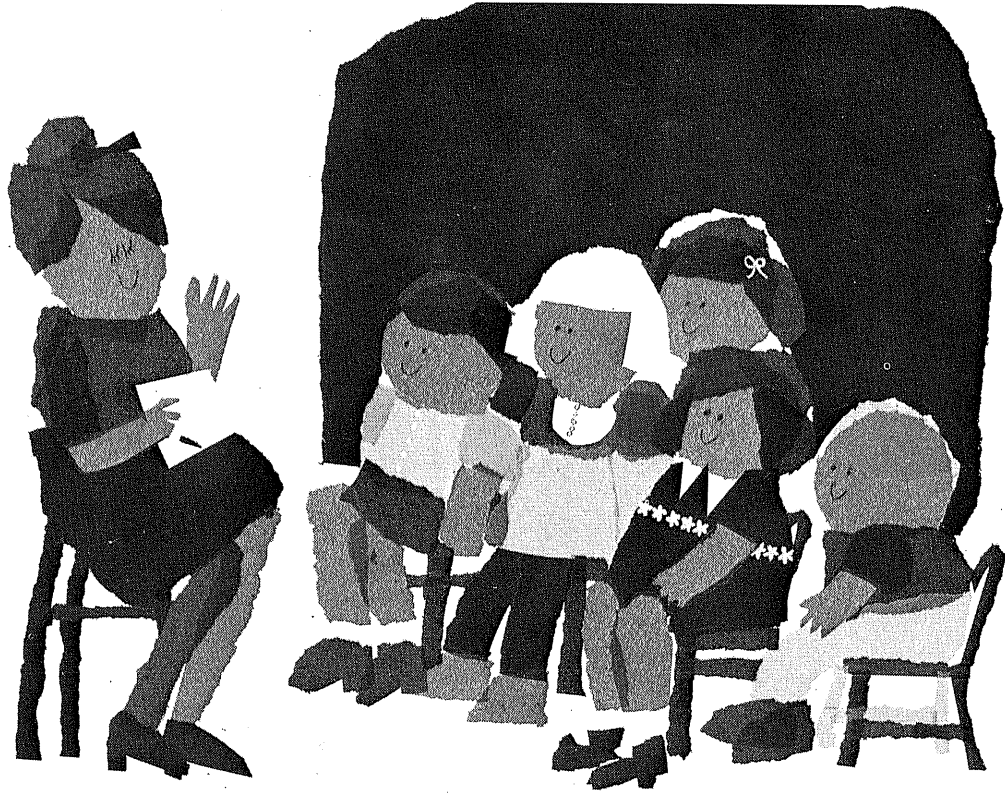
구세주는 우리가 스스로 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씀하셨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니.” (마태 7:7)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는 말은 각각 개인에게 적용되며 시행을 촉구하는 것으로서 많은 노력을 동반해야 함을 알려준다.

복음 원리를 공부한다는 것은 단순히 복음 공과에 기울기 위한 이상의 작업이다. 복음을 공부하려면 탐구의 과정 훨씬 이전에 활동적으로 친히 참여하여야 한다.

교사는 힘이 들더라도 공과 각과의 목적을 분명히 파악하여야 하며 학생들이 스스로의 의문에 답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아이들의 질문에 일일이 답해 주는



것은 때로는 현명하지 못한 일이며 오히려 아이들이 스스로 「탐구」하는 길을 막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는 것이다. 어린 아이가 원하는 대로 외부에서 문제의 해답을 구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교사가 성경을 흥미있게 읽도록 해 주고 그 구체적인 방법 즉 금식을 한다던가 기도를 하던가 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어린 아이들이 교사에게 질문하는 것을 다시 아이들에게로 돌려서 스스로 연구하게 함으로써 탐구의 작업을 지속하도록 한다.

#### 두가지 중요한 가르침의 목적

교사가 교재의 일정한 범위내에서 교수 과정의 세부를 계획하여야 한다.

- (1) 학생 스스로가 연구하고자 노력하도록 한다.
- (2) 학생들 스스로 자기들의 복음에 대한 의문에 답할 수 있도록 한다.

이상과 같은 교수 원리는 다음과 같이 풀이할 수도 있다.

- (1) 학생들에게 알고자 하는 의욕을 갖게 해 주고,
- (2) 학생들 스스로 연구하여 필요한 재료를 수집하도록

한다.

환언하면 학생으로 하여금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를 배우게 하고 복음에 대한 의문에 스스로 답하도록 하며 실제로 이러한 것들을 개인적인 생활에 응용할 수 있을 때까지 저들의 정신적인 컴퓨터와 영적인 컴퓨터를 활용하도록 하는 일이 지극히 중요한 일이라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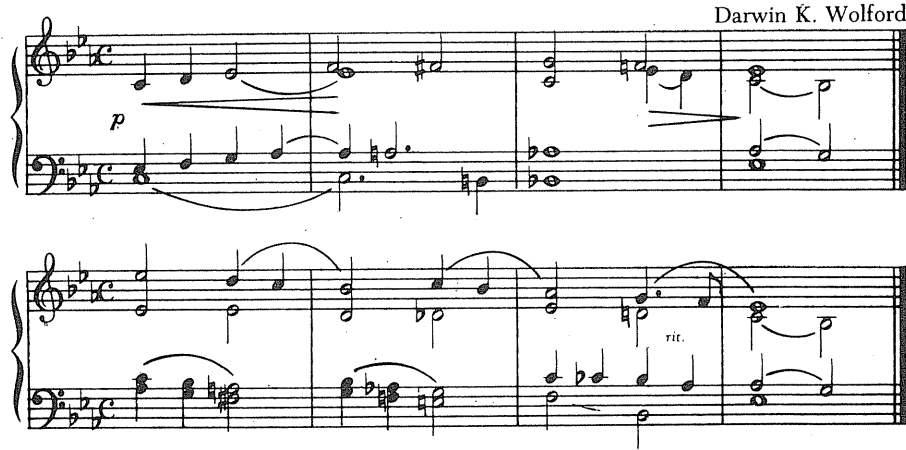
교사의 사명을 바로 인식하여 교사는 그저 필요한 재료만 제공하면 된다는 식의 생각은 버리도록 해야겠다. 학생은 자연히 스스로 가동되고 스스로 전진하는 삶의 진리를 탐구하는 탐구자가 될 것이다. 교사의 참 본분이 무엇인가를 아는 교사는 삶의 의미를 알아내기 위해서 투쟁하는 아이들의 노력에 협조할 것이며, 이들 어린이가 생의 정도에서 수많은 추구의 작업을 시작하겠다는 의욕을 불러 넣어 주기에 합당한 공과를 계획할 것이다.

만일 교사가 자신을 함께 “공부하는 어드바이서”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 개개인에게 저들의 재능과 신앙과 간증을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학습 목표를 세울 수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모두 완전하게 되지 않으면 안될 책임을 져야 한다. 이제 교사는 이와같은 교사의 본분을 이해하여 어린 아이들에게 배움의 횃불을 높이 들 수 있는 가르침을 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의에 굶주린 목마른 자는” 보통 사람보다는 훨씬 먼저  
 주일학교의 목적을 배울 것이다. 학생들에게 배우겠다는

불같은 의욕을 갖게 해 주는 것이 교사로서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상의 기회와 축복이 될 것이다. ○

## 2, 3월 주일학교 성찬식 전주곡



## 2, 3월 주일학교 성찬식 성문 봉독

### 장년 주일학교

2월 마태복음 6장 36절  
 3월 요한복음 17장 3절

### 유년 주일학교

마태복음 22장 39절  
 요한복음 14장 15절

## 3월 주일학교 연습찬송

### 장년 주일학교

103장 애 통하는 이스라엘

### 유년 주일학교

142장 주님 부활하셨네

## 3월 주일학교 성구암송

### 야고보반

마태복음 27장 52, 53절

### 요한반 혹은 기초 교리반

모로나이서 7장 47절



# 나는 직책을 안고 잠들었다

알버트 엘·조벨 이세

● 말일성도의 문필가요 역사가였던  
울슨 에프. 휘트니 장로(1855—1931)  
는 조지 에프. 리처드와 데이비드 오.  
맥케이와 함께 1906년 4월 9일에 사  
도가 되셨다.

늘 여러 사람의 총애를 받으며 또 회  
중들이 원하는 웅변가였던 휘트니 장  
로가 1925년 6월 상향회 대회에서 말  
씀하시는 가운데 21세의 약관으로 그  
가 펜실바니아에서 성공적으로 선교  
사업을 하던 때의 이야기를 하였고  
신문 기사나 시를 발표하므로써 자기  
사상을 성공적으로 전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보다 25세나 위였던 동반자 에이.  
엠. 무서는 못마땅 하여, “자네는 교  
회 서적을 연구해야 하네. 복음은 전  
파하라는 복음을 받은 것이지 신문에  
투고하라는 복음을 받은 것은 아니니  
까” 라고 하였다. 어린 휘트니는 그  
의 선교사 동반자의 이야기가 옳다고  
생각하였으나 그가 문필을 휘어잡을  
수 있다는 기쁨으로 일을 계속하였다.  
1925년 6월 7일 상호향상회 대회에서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루는 제  
가 꿈을—꿈이라고 할 수 밖에 없  
는— 꾸었는데 제가 갯세마네 동산에  
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목격하고 있었  
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여러분을 보  
듯이 그렇게 분명히 보았습니다. 저  
는 앞뜰 나무 뒤에 남들이 보지 못하  
는 곳에 서서 예수와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깎은 조각문을 열고 들어와  
내 오른편으로 지나쳐 가는 것을 보  
았습니다. 예수는 사도들에게 그곳에  
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고 이르신 후  
에 그곳을 떠나 좀 앞으로 나가시더  
니 역시 무릎을 꿇고 기도 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기도  
였습니다. ‘아버지시여 하실만 하거  
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



어 지이다.’”(마 26 : 36—44, 막 14 :  
32—41, 눅 22 ; 42)

“그가 기도하실 때에 눈물이 그의  
얼굴로 흘러내렸고 그 모습을 보고  
나는 감격하여 함께 울고 말았습니  
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커다란 슬픔  
에 대한 순수한 연민이었습니다. 저  
의 마음 전부가 그에게로 기울어져 그  
를 온 마음으로 사랑하였고 다른 곳  
에서는 쏠지 못한 마음을 그 분께 쏠  
았습니다.

“그 때에 그는 일어서시더니 사도들  
이 무릎을 꿇고 깊이 잠들어 있는 곳  
으로 가셨습니다.

“그는 그들을 부드럽게 흔들어 깨우  
시더니 조금도 노여워 하시거나 격한  
감정을 보이지 아니하시고 한 시간만  
그와 더불어 깨어 있도록 말씀하셨습니  
다. 세상의 죄를 한 어깨에 걸머진, 세  
상 만민의 고난을 예민한 감정으로 감  
내해야 했던 그리스도를 저들은 단 한  
시간도 깨어서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시 먼저 자리로 가  
서 기도를 끝내시고 사도들이 있는 곳  
으로 돌아오셨으나 이들은 또다시 잠  
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들을  
다시 깨워 먼저대로 이르시고는 또 기  
도하려 가셨습니다. 똑같은 일이 세

번씩이나 되풀이 되었습니다. 그리하  
여 나는 그들 모두의 얼굴과 모습과  
행동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  
도의 모습은 존엄과 고매함으로 가득  
하였고 몇몇 화가들이 그린 그런 나  
약함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었으며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셨고 그러면  
서도 어린 아이처럼 온유하고 겸허하  
셨습니다.

“갑자기 주변의 풍경은 그대로 였  
지만 상황은 변경된듯 했습니다. 먼  
저와는 완전히 다르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이었습니다. 구  
세주께서 세 사도와 함께 이번에는 나  
의 왼편에 서 계셨습니다. 이들은 모  
두 하늘로 승천할 차비를 하고 계셨  
습니다. 나도 더 이상 참고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무 뒤에서 앞으  
로 뛰어나가 그의 발 앞에 엎드린채 그  
의 무릎을 열싸안고 나도 함께 데려  
가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나를 내려다 보시던, 그리고 나를  
안아 일으키시던 그 온화함과 친절을  
나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사실처럼 생생했던 순간입니  
다. 나는 내가 머리를 묻은 그 분의  
가슴에서 따사로움을 느꼈습니다. 그  
때 그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안된다.

나의 종이여, 이로써 저들은 저들의 일을 끝냈고, 일을 끝냈으니 내가 데려가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는 남아서 끝내야 할 일이 있으니 남으라.’ 그렇지만 나는 다시 매달려 그를 쳐다 보았습니다—그가 나보다 컸으므로— 나는 간절하게 그에게 간청했습니다, ‘약속해 주십시오. 마지막날에 내가 네게 오겠노라고’ 그는 웃으면서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오고 오지 않는 것은 온전히 네게 달려 있느니라’ 나는 아직도 흐느끼면서 꿈을 깨었고 그 때는 동이 트는 아침이었습니다.”

무서 장로는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으로 부터의 대화로군” 이라고 했다.

“나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할 필요

가 없습니다” 휘트니 장로는 대답했다. 그리고 그는 상향회 대회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참으로 분명한 암시를 받은 것입니다. 사도가 되려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고 그밖에 교회의 다른 직책도 맡을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읍니다. 교회의 역원이 되리라는 기미조차 없었지만 나는 그때 잠자던 사도들이 바로 나를 의미했음을 알았읍니다. 나는 나의 자리에서 잠자고 있었읍니다. —성스런 한가지 일에 부름을 받고 다른 일을 하는 다른 수많은 세상 사람들 처럼.

“그러나 그때로부터 상황은 달라졌읍니다. —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글쓰는 일을 포기

하지 않았읍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께서 내가 지방 신문에 기고 하는 기사가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나의 그 “글 쓰는 은사를 개발해 보라고 하시며 장차 이 땅에 의와 진리를 확립하는데 사용될 수 있음을 암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니다. 그 분은 내가 아직도 오하이오에서 선교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세상을 떠나셨읍니다. ‘장차 이 땅에 의와 진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그분이 내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나는 계속해서 썼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함이라는 일념에서 썼읍니다. 하나님의 일을 모든 것의 맨 앞에 두었고 세상의 모든 일은 둘째로 미루었읍니다.” ○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 한국 선교부 예하 각지부 주소 (1970년 2월 1일 현재)

- 
- 한국 선교부 서울 종로구 청운동 7 전화 (73) 3995
  - 중앙 지방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210호
  - 녹번지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응암동 61-56 전화 (38) 4820
  - 동대문지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102-4 전화 (92) 1005
  - 동부지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102-4 전화 (92) 1005
  - 삼청지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5 전화 (72) 3596
  - 서부지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58-1 전화 (73) 1208
  - 성북지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송천동 518-18 전화 (92) 0744
  - 신촌지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2-10 전화 (32) 4279
  - 영등포지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대방동 360 전화 (69) 4663
  - 인천지부 경기도 인천시 우체국 사서함 52호 전화 (2) 9852
  - 청운지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 전화 (73) 3995
  - 춘천 춘천지역 강원도 춘천시 우체국 사서함 9호 전화 3119
  - 남부 지방부 부산시 우체국 사서함 292호
  - 대구 지방부 경북 대구시 삼덕동 2가 24 전화 (2) 6659
  - 동구지부 부산시 동구 수정동 658-10 전화 (4) 9769
  - 동래지역 부산시 동래구 장전동 642-88 전화 (5) 1180
  - 마산지역 경남 마산시 우체국 사서함 40호 전화 4961
  - 부산 지방부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3가 95 전화 (4) 7071
  - 호남 지방부 전남 광주시 우체국 사서함 29호
  - 광주지부 전남 광주시 우체국 사서함 29호 전화 (2) 2692
  - 대전지부 부산 충남 대전시 우체국 사서함 38호 전화 (2) 6273
  - 목포지역 전남 목포시 우체국 사서함 7호 전화 (2) 2065
  - 전주지부 전북 전주시 우체국 사서함 38호 전화 2819

#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선교부장 서 현 보



● 여러분은 여러분을 헐뜯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따끔하게 반박해 주지 못한 일로 마음을 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자다가도 문득, 내가 이렇게 공박해 주었더라면 하고 생각해 본 일은? 그리하여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둔한 신경을 몹시 꾸짖지나 않았는지요.

여러분이 그러한 일로 누우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마땅히 여러분은 노하기를 더디한 일로 감사해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은 많은 논쟁을 피한 것이며 많은 친구를 건진 것입니다. 아울러 여러분은 곧 누우칠, 어린 아이같은 격한 감정의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지껄이지 아니한 덕분에 여러분의 품위를 조금도 손상시키지 아니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분을 다스리는 자는 성읍을 탈취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의 치수는 그가 얼마나 그의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느냐로 결정되어야 한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 입니까! 하찮은 일로 마음을 상하고 화를 내는 것은 인품이 모자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홀로 있거나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있거나간에 우리는 계속적인 외부로부터 자극에 민감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극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로 그 사람의 품성을 알 수 있습니다. 건강하며 유쾌한 품성을 간직하기 원한다면 적어도 쉽게 노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론은 참으로 타당하다 하겠습니까. 우리들은 자신의 보다 성숙한 면을 보여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신경에 거슬리는 주위 환경을 보다 현명하게 조절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신을 다스리려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여 화를 내게 되면 우리들은 육적인 면, 정신적인 면에서 타격을 받게 됩니다. 분노는 마치 독과도 같아서 화를 당하는 사람 보다는 화를 내는 당사자가 더 큰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현대 의학은 증명해 놓았습니다. 중국 격언에 “적 죽이려 놓은 불에 자기 먼저 타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클리블랜드의 저명한 의학자의 말을 빌리면 “화가 났을 때는 정상 기능을 찾을 수 없다. 중요한 부분의 기능이 마비되어 음주했을 때 보다는 자신을 가누기 힘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하여, “분노와 공포의 상태에서 회복 속도가 느린 뇌 세포가 파괴되며 극심한 긴장이나 장시간에 걸친 걱정은 뇌에 영원한 상처를 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심장 및 신경 계통을 파괴하는 결과를 일으킨

다는 점에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자제, 안정, 쾌활 등은 훌륭한 육체 및 건강에 자극제가 됩니다.

분노가 우리들 인간을 부정적인 면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저해함은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우리의 지혜와 현명한 판단력을 파괴한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사업을 운영한다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거나 말을 한다는 것은 마치 폭풍 몰아치는 바다를 향해하겠다는 선장의 무지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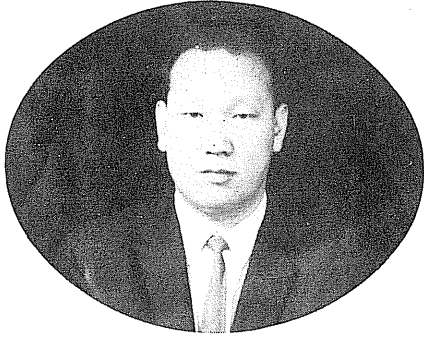
흔히 말하고는 후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기를 꺾어 놓거나 불손한 태도를 보인 후에 후회하는 사람도 많으나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은 범치 말아야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헐뜯는 행동을 두꺼운 종이에 압핀을 박는 것에 비교하면 재미있습니다. 품었던 분노가 사라지면 후회하게 됩니다. 압핀은 제거되지만 작은 구멍은 역시 남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다했을 때 재빠른 판단으로 자신이 사용할 말이 상대방에게 영원한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 알고 심한 말을 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상처나 기타 두통을 면하게 됩니다.

화를 내면 영적인 면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영적인 감각이나 하늘 아버지를 가깝게 느끼는 감정을 해치는 요소로 분노를 따를 것이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브리감영 대관장의 심중에도 역시 같은 생각이 깃들어 있지 않았나 합니다.

“노하지 말라. 우울한 기분에 잡히지 말라.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라. 단순한 마음으로 그 분을 섬기도록 하자. 노하여 기도를 못할 정도가 되어서는 안된다. 적에게, 가장 원수같은 적에게 음식을 주지 못할 정도로 노해서는 안된다.”

구세주에게는 실로 적이 많았으나 우리들 모두를 위하여 자제의 표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솔트레이크 신전에는 빌라도 앞에 무고한 죄명으로 붙들려 모욕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깨끗하게 서 계신 예수를 묘사한 그림이 있습니다. 참지 못할 곤욕을 치르면서도 불의에 찬 소리나 분노를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는 핍박하는 자들과 같은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그런 행동을 하셨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똑바른 자세로 서서 움직이지 조차 않았습니까.

끝으로, 저는 우리들 모두가 개인의 영적인 발전은 훌륭한 자제력의 발현없이는 절대로 실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우리는 어느 길을 택하나?

중앙지방부장 차 종 환

● 우리가 처음 출생하여 생을 출발할 때는 같은 실력, 같은 모양, 같은 위치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리들 상호간의 차이는 더욱 현저해 집니다. 그 일례로 일류 대학 입학에 실패한 어떤 학생은 일 이점 차이로 이류대학에 입학하여 졸업할 무렵에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 어떤 사람은 가족과 그 사회나 국가에 덕을 주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어 그 가정과 사회 및 국가에 있어야 할 사람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족과 사회 및 국가에 해를 끼쳐서 있어서는 안될 사람,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 됩니다. 이들 두 무리의 인생관을 살펴 볼 때

1. 생에 대한 마음의 자세에서 내가 받은 모든 소유, 생명, 능력, 지력 등을 하나님의 축복에 의한 것으로 보는 사람과 모든 소유권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후자와 같은 인간 중심의 사고 방식을 배격하여 십일조의 법을 안 지키며 점점 욕심이 생겨 죄가 되고 죄가 커져 사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 직업에 대한 사고 방식에서 직업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보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과 직업을 생계 유지의 한 수단으로 보고 의식주 해결에만 직업의 목적을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한 종은 사명감에 일하고 악한 종은 운명감에서 일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3. 생의 동력이 되는 용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과 내 힘으로 개척해야 한다는 인간 중심주의의 사고 방식이 있습니다. 인간은 강한듯 하면서도 약하고 무력합니다. 인간이 성공하는 데 유한한 자신의 능력에만 의지할 수 없습니다. 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의존해야 합니다.

4. 성실성에 대한 자세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면전에서 행한다는 엄숙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방종이 없고 반면 생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자는 생에 대한 성실성이 없어 향락과 안일한 생만을 원하기 때문에 착하고 충실된 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5. 근면성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고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을 아껴쓰고 선용하는 사람과 게으른 종과 같이 재능과 능력을 활용치 않고 생에 대한 진지

한 노력없이 마음대로 놀고 즐기는 인생관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높은 공을 세우려면 뜻이 있어야 하고 큰 업을 이루려면 부지런해야 합니다. 태산이 높다해도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리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생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기쁨을 돌려야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한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세상 생활이 어려울수록 올바른 생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갈 길은 험하고 좁을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경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험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리라” 했으니 갈길이 좁고 험착하더라도 그 길을 따라가야 생명으로 인도됨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4, 5장에서 악인의 대표 가인의 족보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지상에 속한 자를 의지하다가 호홉이 끊어지면 고만이며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전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경고 하시기를 “은을 사랑하는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고 하였고 “그 소유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리요.” 했습니다. 또한 디모테전서 6장 10절에 “금전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리라.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유희를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찢렸도다.” 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면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면 시냇가의 수양버들과 같이 말라 죽는 일이 없이 정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을 의심없이 믿고 외아들 이삭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기셨다는 사실, 히스기아왕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 했더니 하나님께서 앗수루군 18만 5천을 멸하셨다는 사실들을 성경에서 찾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컨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를 사랑하며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가 되어 능력의 성도가 되고 열매 맺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의 뜻이 여러 성도들 위에 임하시기를 빌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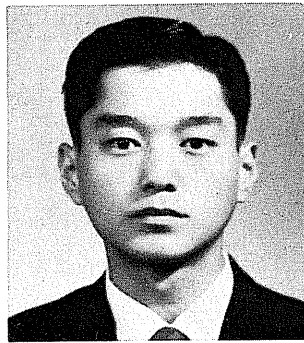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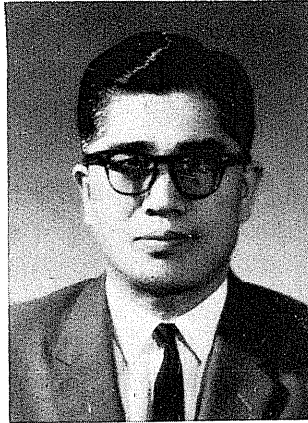


## 호남지방부 탄생 지방부장에 이 재수 형제

지난 1월 25일 광주지부에서는 한국 선교부에 3개의 지방부가 탄생됨을 축하하는 130여 성도가 모인 가운데 호남지방부가 탄생되었다. 중앙지방부의 대전지부와 남부지방부의 전주, 광주, 목포지역을 한데 묶은 호남지방부의 탄생은 이 땅이 점점 복음으로 메워지는 산증거이리라.

지방부장으로 지지된 이 재수 형제는 말씀을 통해 해 “호남지방부를 키워서 다시 두 지방부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밑일이 되자”고 했었다. 이 재수 형제는 현재 전남대학교 사무국장으로서 있다.



### 이 형제 선교사로

성북지부 지부서기로 봉사하던 이 우영 형제가 지난 1월 10일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부산지부에서 봉사하고 있다. 어머님만이 비회원인 그의 가족은 그의 장도를 위해 가족모임을 가진 바 있다.

### 이 해동 형제 신촌지부장으로

신촌지부의 지방부장으로 이 해동 형제가 지지되었다. 지난 12월 21일 박 재암 형제의 후임으로 신촌지부장의 중책을 맡은 이 형제는 지부장으로 해야 할 일을 “지부의 모든 회원이 가족단위의 복음공부를 시작해서 한 가족이 모두 교회에서 예배하는 지부로 전통을 세우는 일”이라면서 가정복음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었다.

그는 6남 2녀의 자녀를 두고 있다.

### 중앙 로드 쇼

지난 11월 29일 중앙지방부 상향회 주최의 로드쇼가 서울 동부지부에서 있었다. 지방대회에서 시상하기로 한 이날 모임에는 7개 지부가 경연에 참가하였었다.

### 상향회 세미나 개최

중앙지방부 상향회 주최의 세미나가 지난 12월 1일부터 19일 사이의 월, 금요일인 4일간에 걸쳐 서부지부에서 있었다. 각 지부의 상향회 역원을 대상으로 모임을 가진 동 세미나는 주덕영, 박 중식 형제에 의해서 지도되었는데 세미나의 내용 민속무용, 오락지도, 소창 등이었다.

### 금 바울 형제 서거

남부 지방부 평의원으로 봉사하던 금 바울 형제가 지난 12월 27일 향년 72세로 세상을 마쳤다.



### 선교부 구내에 번역 출판부 건물 기공

지난 12월 15일 선교부 구내에서는 태평양지역 번역출판부 책임자 디몬 콤스 형제와 극동 담당 와다나베 형제 선교부장 내외를 비롯한 성도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번역출판부 건물 기공식이 있었다. 선교부 정문과 농구장 사이의 공터에 세워질 번역출판부 건물은 극동지역 번역출판부 건물로는 처음 세워지는 것으로 한국 성도들에게 필요한 책자의 번역, 인쇄, 배부 관계의 모든 작업을 해낼 수 있는 시설도 함께 설비하게 된다. 지하실로 되어있는 1층은 인쇄실, 종이 창고 등으로 구분되며, 2층은 번역을 위한 사무실과 판매부, 그외에 필요한 작업시설로 되어있다. 건물은 5월 중에 착공되어 올해 안으로 준공될 것이다.

### 남부 상향회 로드 쇼

남부 지방부 상향회 주최의 로드쇼가 지난 12월 27일 남부 산하 3개 지부(동구, 부산, 대구)의 착관리에 있었다. 물몬경에서 주제를 고르도록 되었던 이날의 모임에서 동구지부가 우승을 차지하였다.

### 남부 지방부 주최 노년의 모임

지난 12월 21일 남부 지방부는 서울 노년의 김 산 형제를 초청 “개종과 신앙” 대한 말씀을 듣는 모임을 가졌다. 부산지부에서 오후 6시 30분부터 가진 이날 김 산 형제는 “복음이 주는 축복은 더우기 말일에 회복된 복음이 가져다 주는 축복은 기도로서만이 가능한 축복”이라고 한바 있었다.



## 서부지부

서부지부 상향회 주최의 성탄 축하 모임이 지난 12월 24일 오후 6시 30분 부터 서부지부에서 있었다.

이날 회원들은 "모든 사람이 말일의 복음을 생활화 할 것"을 다짐하는 모임이 기도 했다. 사진: 게임에서 ↓

## 삼청지부

삼청지부는 12월 24일 저녁 유년 주일학교의 "우리집의 자랑"과 요한반의 "또 하나의 기쁨"이란 연극을 공연하였다. 성탄 축하 모임의 일환으로 준비된 이날 120여 회원들은 이 외에도 합창과 빙고 게임, 민속무용의 순서를 가졌다.

## ↑ 중앙지방부 역원 세미나

지난 11월 21일부터 3일간 중앙 지방부는 "교회 지침서"에 대한 세미나를 가졌다. 선교부장단과 함께 각부의 지부장단 이상의 역원을 대상으로 하였던 이날의 모임은 평의원의 연구발표와 2개월의 준비 기간을 통하여 의문되는 것을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 영등포 지부대회

지난 12월 28일 영등포지부는 창립 2주년 반을 맞는 지부대회를 영등포 소재 지부에서 가졌다. 지방부장단과 선교부장단을 초청한 가운데 진행된 모임에서 지부장 김창선 형제는 "오늘로 시작되는 1년을 모든 것에서 모범을 만들자"고 서로의 협력을 촉구한 바 있었다.

## 주일학교 칸타타 성황 →

중앙지방부 주일학교 주최의 성탄 축하 칸타타 모임이 지난 12월 23일 오후 6시 동부지부에서 있었다. 각지부에서 분담하여 합창과 극을 준비한 이날의 모임은 다른 어느 때의 성극 보다도 다채롭고 내용이 풍성한 모임이었다. 주일학교 평의원 서원 형제는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이 참가하여 이 놀라움고도 극적인 모든 요소를 갖춘 이야기를 경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애썼다"고 했다.



**일색 화보 10장이 들어있는 볼본경**

본문: 고급 인도지 인쇄 · 제본: 포의, 영: 고급 인도지 인쇄 · 제본: 포의

인쇄: 윗셋 · 총 878페이지 · 값: 150원

산청: 대우출판사 1409, 각지부 산교사

## 가정에서의 다툼과 행복

리차드 엘. 이반스

● 삶의 근본적인 기쁨의 하나는 가정에서의 조화와 행복입니다. 이것은 무엇 보다는 성품과 예의와 간단한 일상 상식으로 해결될 문제입니다. 왜, 정말 왜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유대를 갖고 살아가는 가족끼리 다투고 오해하고 가정에서의 행복과 평화를 파괴해야 합니까? 도로티 왈워드의 말처럼 “엄청난 폭풍우 처럼 하늘을 산산 조각내는 다툼도 있고” “종내는 결혼을 깨쳐 버리고 말 쓰디쓰고 상처를 남게하는 다툼도 있습니다. ……씨이자가 루비콘을 지나친 다음 그는 다시는 그 길을 되돌아가 옛날의 영화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다투고 있을 때는 가장 행복했던 옛날의 추억마저 간단히 입술의 몇마디로 쓰디쓴 증오의 시체가 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다시 옛날로 발길을 돌려 예전과 같은 결혼 생활을 갖지 못합니다. ……피곤한 하루가 끝나는 피로한 시간에 남편이나 아내가 던지는 몇 마디의 말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 들여서는 안됩니다. 피곤하고 신경이 곤두섰거든……부드럽게 마음을 돌려 봅시다. ……오늘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다투기 보다는 그럴 정열을 모아 보다 훌륭한 일을 하도록 노력해야 겠습니다. ……단순한 승리를 위한 논쟁은 그만 툽시다. 우리의 남편이나 아내가 결코 우리의 적대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대적하여 무너뜨리고 승전가를 부를 상대는 아닙니다. ……다툼은 늘 매듭지어져야 합니다. 다툼 그것으로 종결되어서는 안됩니다. ……둘이 다 부러통해 있다니……누군가가 먼저 ‘미안하오’ 라고 할 수 있어야지 미안하다는 말을 못할만큼 교만해서는 안됩니다. ……자존심은 너무 비쌉니다. ……정의만을 끝까지 주장할 것도 못됩니다. ……다툼을 대비한 마지막 경고……다툼은 은밀히 처리해야 합니다. ……공공연한 다툼은 최악의 것, 유일의 해결책은 입을 닫아버리는 일입니다.\* 결국 성품과 예의와 상심의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망서릴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진심으로 사과하면 또 이를 받아 들여야 합니다. 교만이나 고집이나 어리석음이 가정의 행복이나 평화를 깨뜨리게 해서는 안됩니다. ○

\* 도로티 왈워드 “「잘못되었오」 라는 이야기를 두렵게 여기지 않아야” 가정을 선하게 다스리는 법중에서 1942. 4.